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못한 환경과 압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을 특별히 기억해주시고 자유롭게 품고 풍성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신앙을 지켜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의 참는 모든 압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 북한정치범 중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

#### USCIRF '2018 연례보고서, 북한 등 16개국 종교자유 침해 심각 지적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나 완화는 종교자유 등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USCIRF Releases 2018 Annual Report, Recommends 16 Countries be Designated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한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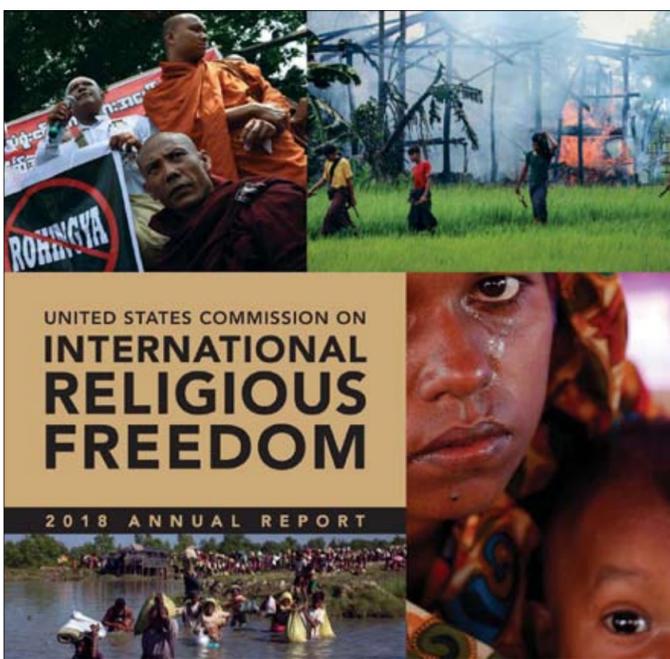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으며, 감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https://www.uscirf.gov/sites/default/files/North%20Korea%202019\_Korean%20translation.pdf에 들어가면 한국어 버전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따라 창설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이다. 종교자유는 인류 보편적 권리이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미국의 핵심 가치이다. 전 세계에 이런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박해 실태를 조사해 미 정부에 개선책을 권고하는 게 위원회의 주요 임무다. 위원들은 대통령과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각각 지명한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에 국제 종교자유 상황에 대해 정책을 직접 자문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국무부는 특히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해마다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

표하고 종교 자유 박해국에 제재 등을 통해 개선을 압박한다. 북한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지정됐기 때문에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 402조와 제 409조(잭슨-베니 수정조항)에 따라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에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종교 상황 역시 별 다른 차이가 없다. (3면으로 계속)

### '리더십 파이프라인' 을 감지하라!

리더십저널, 소그룹 사역전문 빌 도나휴/리스도빈슨 목사의 리더십 발굴 개발 성장 노하우 소개

예수님께서 리더의 필요성을 아셨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9:35).

평신도 리더는 교회에서 핵심이다. 특히 소그룹에 헌신하는 교회라면, 리더십 개발의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리더십 부대를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지속적인 리더십 개발을 등한시한다면 두 가지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둘째는 리더들이 충분한 자격과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양해줄 리더십이 없는 백성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신다. 목자 없는 양들을 전도해 그들을 모임 속으로 흡수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면, 리더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언제나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리더의 수가 부족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지속적인 리더십 개발의 의무를 거절하는 것이다.

월로우크릭협회의 소그룹 사역 총책임자인 빌 도나휴와 월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소그룹 사역 총책임자였으며 현재 매도브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스 로빈슨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 준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인터뷰 이경숙 목사(월드쉐어 이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오프믹스) 가장상당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전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발행인 칼럼 ●

아버지의 마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며칠 전 신학교 종강예배 설교 중에 학생들에게 던진 토론 주제였다. 돌씩 혹은 셋씩 짝을 지어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냥 두었다면 밤을 새워 이야기 했으리라. 깊은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눈시울이 젖기도 하는 학생들을 보았다. 후에 들어보니 아버지 이야기하러는데 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마음이 덜 컸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아버지만큼 다양한 관점을 갖는 주제가 있을까?

수년 전 고(故) 황수관 박사의 강연 동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는 어느 여론조사 내용을 밝히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어머니”였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름다운 이름 70위에도 들지 못했다는 결과도 덧붙였다. 그래서인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지었다는 “아빠는 왜?”라는 시(詩)는 이렇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 해주어서/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짧은 시를 읽으면서 입가에 웃음은 있었으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여 마음이 씁쓸했다.

하지만 조장인 씨의 소설 “가시고기”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시고기 수컷은 새끼를 돌보느라 밤을 지새우고 새끼를 사랑하다 죽어가는 고기라 한다. 그 소설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한쪽 눈까지 팔아 병원비를 대기까지도 사랑했던 아들을 이혼한 부인에게 넘겨주던 날, 그 아버지는 울음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잘 가라, 아들이. 잘 가라 나의 아들이. 이제 영영 너를 볼 날이 없겠지. 너의 목소리를 들을 길이 없겠지. 너의 따뜻한 손을 어루만질 수 없겠지. 다시는 너를 가슴 안아볼 수 없겠지. 하지만 나의 아들이. 아아, 나의 전부인 아들이. 아빠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널 남겨놓는 아빠는 네 속에 살아 있는 거란다...”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 자신도 간암에 걸린 그는 언젠가 아들에게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고 후배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소설이다. 그렇다. 역기능(逆機能)의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표현을 못해서 그런 희생과 사랑의 아버지이다. 소설 가시고기는 그런 아버지를 절절히 보여주었다. 곰곰 생각해보면 역기능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상처를 받아 그렇게 되었을 터이니 무조건 머리 돌릴 일만은 아니다.

그 날 나의 종강예배 설교는 말라기 4장 5,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주제의 설교였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랑하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지키시는 아버지. 이해하는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혹시 기억하시는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육상 준결승에서 그 종목의 메달 유망주였던 영국의 데렉 레드몬드(Derek Redmond) 선수가 중간도 못되어 쓰러졌던 사진. 의료진의 도움도 거부하며 다시 일어서서 뛰려다 또 쓰러졌던 그 그 때 관중석에 뛰어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였다. “데릭, 뛰지 않아도 돼. 그만해도 돼.”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 “그럼 함께 뛰자꾸나!” 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하며 천천히 달리다가 결승전 직전에 슬쩍 손을 놓아 아들 혼자 결승선을 넘게 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라” 신학생들만 다그칠 일이 아니다. 내가 먼저 그래야 한다.

AI 감시체제,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다!

컨버세이션, 국가 감시/검열 능력향상 돕는 AI체계 위협성 경고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의 감시와 검열 능력 향상을 돕는 인공지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 군부 산하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협력 외에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이지 주립대학 공공정책 석좌교수 스티븐 펠드스타인(Steven Feldstein) 교수는 정부나 공권력이 첨단 디지털을

통한 억압 분야 연구에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펠드스타인 교수는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기술은 정부에게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단언한다. 심지어 법의 지배에 따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주 정부까지 이 기술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한다(How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could threaten democracy).

인공지능 체계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가장 큰 위협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중요한 실재다. 중국 지도부는 열성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받아들이며,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국가를 신장 지역에 설립했다. 해당 기술은 시민의 움직임과 스마트폰 사용을 매일 추적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비슷한 독재국가에 모델이 되고 있으며, 열린 민주사회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끼친다. 비록 다른 정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슷한 감시를 한다는 증

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찰은 이

람을 파악해낸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을 중국 내 소수민족

방글라데시, 케냐 등의 90개 국가를 분석해냈다. 그 결과, 중국 기업이 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최소 54개 국가에 수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흔히 이 기술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의 일부로 포장된다. BRI는 세계 인구의 60%가 사용하는 광범위한 육로, 철로, 에너지 파이프라인, 통신 네트워크와 전 세계 GDP의 40%를 만들어 내는 경제에 자금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기업은 파키스탄, 필리핀, 케냐에 광범위한 감시를 가능



인권 약한 중국이 가장 중요 실체...시민 움직임, 스마트폰 사용 매일 추적 수익위한 고급 장비판매와 기술공유는 달라...전세계적 감시싸움 뿌릴 수도

거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기업은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을 전 세계에 활동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인공지능 체계는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엔진, 디지털 음성 비서, 넷플릭스 영화 추천 등 현대 사회 모든 곳에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향상된 알고리즘, 고급 컴퓨터 칩에 힘입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이용 가능해지고 분석이 쉬워지며 독재 정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가 인공지능 체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미 1970년대 미국에서는 FBI, CIA, NSA 같은 정부 기관이 시민권리집회 참가자, 정치 행동주의자, 미국 원주민 집단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내 감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존재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더 많은 기관이 감

미 인공지능 기술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순찰 근무 중인 경찰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가 일어날 지역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또한, 미국 경찰은 범죄 수사에 얼굴 인식과 DNA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의 경우 때로 훈련을 위한 데이터가 편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 흑인이 다른 인종 집단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불공평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독재 국가에서 인공지능 체계는 치안 부대가 소셜미디어 게시물,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같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들며 국내 통제와 감시를 돕는다. 경찰은 인공지능 체계를 통해 알려진 정보를 이용해 사회적 경향이나 정권에 위협이 되는 특정 사

이 거주하는 지역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신장과 티베트 지역의 감시 체계는 “오웰리언적(전체주의적)”이라고 묘사된다. 의무적인 DNA 표본수집, 와이파이 네트워크 감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얼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통합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연결될 때로 훈련을 위한 데이터가 편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 흑인이 다른 인종 집단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불공평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단한 독재주의부터 미흡한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정치 체계를 가진 태국, 터키,

하게 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다. 화웨이는 필리핀의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24시간 작동하는 고화질의 카메라를 공급해 “인공지능 보안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를 발견하고 교통을 관리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술을 공급했다.

하이브리드, 이투, 센스타임 역시 최신 얼굴 인식 카메라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110,000개의 카메라가 부착된 가로등 기둥을 도시 국가 주변에 놓는 감시 프로그램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4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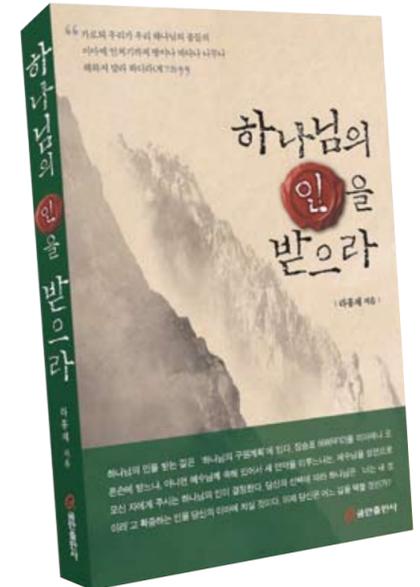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리더십 파이프라인' 을 감지하라

(1면에서 계속)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주의를 기울이라  
 '리더십 파이프라인'은 리더십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새로 등장하는 리더들과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들어갈 예비생들을 찾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독해 소그룹 리더에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다.  
 좋은 파이프라인은 소그룹 리더십을 좀 더 빨리 맡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이동속도가 빠른 이 사회의 한 가지 부산물은 교회에 오는 많은 새가족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소그룹 인도나 사역을 경험해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리더로서 함께 소그룹을 세워 갈 것을 요청해야 한다.

'계발'보다 '선택'에 집중하라

△드러나지 않은 리더들을 파악하기 위해 책을 사용하라.

'터보그룹'을 사용해 리더를 계발하라  
터보그룹은 주도면밀한 리더십 훈련을 견강한 소그룹 경험과 결합시킨 것이다.

리더십 계발의 도전에 직면하라



## 지속적 리더십 계발 없이는 교회성장 어려워 잠재리더 선택이 중요, 주도면밀 리더십 훈련과 연계

대부분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해 계발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을 계발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두었다. 모든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원칙이 맞지만, 리더를 세우는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사람들을 심사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올바른 잠재 리더들을 선택하는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라 △상상 몇 사람과 함께 선택하라 △대상을 발견할 때 기회를 꼭 잡으라 △계산된 모험을 하라

터보그룹의 모든 멤버는 자신의 소그룹을 인도할 기술을 연마하는 견습생들이다. 터보그룹이 특히 효과적인 것은 교회나 부서가 첫 출발 모드에 있을 때다. 터보그룹의 구조와 과정은 경험 없는 리더들을 리더십의 소유자로 더 빨리 성장시키지만, 그들의 질과 타협하지는 않는다. 터보그룹을 통해 우리는 인도할 준비가 거의 다 된 사람들의 기술을 단련하는 한편, 그들을 교회의 가치와 사명에 부합시킬 수 있다.  
 터보그룹은 많은 부분에서 보통의 소그룹처럼 가능하며 소그룹의 전형적인 핵심

리더십이 존중되고, 전수되고, 본보기가 제시되고, 리더십을 공유할 때 교회는 재생산의 비옥한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서 리더십의 수영장으로 풍덩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물보라를 일으킨다. 그래서 때로 소수의 소그룹 멤버들은 물에 젖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앞서 가신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이 일에 꾸준히 정진한다면, 당신의 수영장은 현대의 디모데, 베드로, 브리스길라, 루디아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 시론

## 칙-필-에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식당 중에 '칙-필-에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호이름이 마치 쓰다만 단어처럼 혹은 외국어처럼 죽 붙여놓은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체 이름을 한글로 표현할 때도 "칙-필-레"와 '칙-필-에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야?"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칙-필-에이' 라는 상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느 나라 말입니까?

칙-필-에(Chik-fil-A)라는 말은 'Chicken Fillet' 라는 말의 줄인 말로 닭을 생선 회 뜨는 것처럼 뼈에서부터 고기를 분리해서 순 고기만 사용한다는 것이고, 가장 뒤에 붙은 대문자 A는 그렇게 해서 최고급인 A급 음식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호 그대로 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닭의 품질과 식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아주 좋습니다. 음식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을 17-18달러(2018년)로 인상하면서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친절 전문가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

다. 그런 칙-필-에이가 최근에 얻어준 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저지에 소재한 Rider 대학에서 칙-필-에이가 동성결혼과 성전환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 입주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 그런데 이번에는 텍사스의 산 안토니오 국제공항에서도 칙-필-에이가 공항구내 매장 입주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유는 Rider 대학과 같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며 시작된 예모리대학교에서조차 칙-필-에이가 반동성애적 정책을 취한다는 이유로 대학 캠퍼스에서 축출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에 대해 칙-필-에이의 반응은 억울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칙-필-에이가 성적(性的)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는 2012년,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였던 Daniel 씨의 발언 때문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결혼관은 평생토록 함께 가야 할 배우자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기독교적인 결혼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칙-필-에이의 공식적인 입장은 Daniel씨와 달리, 고객이 어떤 식의 성적(性的) 취향을 취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한 사람의 고객으로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이 회사의 기본철학을 밝힙니다. 그러나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보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관점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밭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기에 바르고 정직한 신앙적인 관점을 표현하며 살아가자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 그 길에 빛과 인도자가 되는 영원한 창조주의 말씀에 눈을 돌립니다. 때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불편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분의 계획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조용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신실함의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워집니다.  
 살롬...  
 thechoi82@yahoo.com

(1면에서 계속)

오히려 이전과 변화가 없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종교적 표현이나 활동,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체포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문과 투옥은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처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 결탁한 최대의 종교 위협 대상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김 씨 정권의 핵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품계리 핵심현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명간)관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미 행정부 안에서 인권과 안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섯 건을 권고했



다. △북한 정부에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할 것 △공석 중인 북한 인권특사의 임명 △인권과 종교 자유가 미-북 대화에 포함되도록 북한에 관한, 혹은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대화에 북한 인권특사와 국제 종교자유 대사를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독립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

록 △대북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한 외에 15개 나라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포함됐다. 즉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또한 새롭게 특별우려국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총 16개 나라가 종교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Global Leadership Forum & 2019 Commencement

###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학위 수여식

세계 미래 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한 Midwest University는 미국의 높은 교육 장벽에 도전하여 많은 난관속에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여 이제 33 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글로벌 리더십 포럼과 학위 수여식에 교민 여러분과 동문 가족을 초청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John R. Ashcroft, JD**  
Missouri Secretary of State  
현, 미주리주 국무장관



**Dr. James Song**  
Founder / President  
설립자, 총장



**Dr. Jong Yong Lee**  
Pastor, Cornerstone Church  
Harbor City, CA



**Dr. Se Cheon Eom**  
Midwest Professor  
교육 리더십 교수

**Midwest Summer Seminar**  
May 20-23, 2019

**Global Leadership Forum**  
May 23, Thursday 9:00-12:00 pm

**Commencement**  
May 23, Thursday 3:00 pm

**IEA Ordination Service**  
May 23, Thursday 6:30-8:00 pm

**경영대학(원)** B.A 경영학, 마케팅, MBA 리더십, 투자, 자산관리, 부동산, 비즈니스 경영, 공공정책과 행정, 공공 안전, 보안, 마케팅, 인력관리 리더십, 지역개발, 분쟁조정과 협상

**국제항공대학 B.S** 국제조종사, 항공정비사 (FAA 조종사, 정비사 면장과정)

**교육대학원 M.A Education** 두뇌개발과 영재교육, 기독교교육 M.A English Education (TESOL) 영어교육석사

**신학대학(원)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상담, 선교, 교육, 목회신학

**상담대학원 M.A** 결혼과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학교상담

**음악대학원 BM, MM, DMA**

**리더십 대학원** MBA 글로벌 리더십 Doctor of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Ph.D. in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e@midwest.edu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그 부모에 그 자식!

늦은 밤에 절친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워낙 막역한 사이라 개의치 않았다. '아빠 계시

니?' '예!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바빠 수가 없어요.' 친구 목사의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응! 그러니? 그래도 아빠하고 꼭 통화를 하고 싶은데. '안돼요. 아빠 주무시는데 내일 다시 전화하세요.' '아니야. 내가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야! 급한 일이 있으니 아빠 좀 바꿔줘.' '글쎄... 그래도 안돼요.' '그래! 너 몇 살이니?' '6살이에요.' '그래 참 착구나.' '그런데 급한 일이야... 아빠 좀 깨워줄래?' '안돼요. 왜? 아빠 주무실 때 깨우면 아빠가 생지랄을 치세요. 그래서 깨울 수가 없어요.' '했단다. 내가 지어낸 얘기였으면 참 좋겠다. 평소엔 좋은 아빠인데 건드리면 생지랄을 하는 아빠가 된다면 참 곤란하다. 보통 때에는 착한 장로 집사 권사 같은데 조금만 건드리면 생지랄을 하는 부모가 된다면 정말 대책이 없네. 자신은 속여도 아이들은 속일 수가 없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아이들은 심

는 대로 거둔다. 끝까지 착함을 심고 진실을 심어야 한다. 과속으로 경찰에게 차 한 대가 잡혔다.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내가 술 마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 옆에 있던 부인이 중얼 거린다.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내가 운전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뒤에 있던 꼬마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 내가 맞았지요? 훌쩍 차는 꼭 들킨다고 아까도 말했지요?' 막가파 가정의 비극적인 단막극이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1700년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청교도 목사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다. 동시대에 불신자로 뉴욕에서 살았던 맥스 주크 가문이 있었다. 150년의 저들의 후손들의

행적을 조사 비교해왔다. 맥스의 후손 중에는 7명의 살인자들과 60명의 강도전과자, 50명의 창녀들, 130명의 범법자들, 310명의 극빈자들과 400명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장애인들로 살면서 정부에 끼친 손해액을 환산하면 125만 달러가 되었다고 한다. 반면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들은 1,394명이었는데... 100명의 목사나 100명의 선교사, 80명의 공직자들, 65명의 교수들, 30명의 판사와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3명의 상원의원과 1명의 부통령을 배출했다고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딱 맞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교사이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식당에서 산토끼처럼 뛰는 자식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걱정된다. 아빠는 다소 모자라도 괜찮다.

그러나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식을 몰래 숨겨 키웠던 요게벳 같은 엄마가 없었으면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없었을 것이다. 신성시대와 왕정시대를 함께 이끌었던 인재 사무엘도 엄마 한나의 비전에서 태어났다. 100세 훨씬 지난 늙은 아버지의 동아줄에 묶여 번제단 장작더미에 한마디의 항변 없이 누워있던 이삭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어린이 주일과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과 아빠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이면 맥스 주크가 아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같이 그 부모에 그 자식들이 많이 나오기를 빌어본다.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가 성도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갈등하면서까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요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참된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성도라 간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 거룩의 추구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v.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

그들은 죄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고 지적합니다(롬6:20).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에 대해서 갈망합니까? 예수님으로 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w.1-3).

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벽하게 닳을 것이지만 현재는 아직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2절에서 설명해줍니다. 요한은 1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 후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언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녀가 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결론적으로 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써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해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느 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완벽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자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피나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자신의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 거룩은 성도의 표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3장 3절)

미국 신학교에서 기말고사 때 맨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기 동안 읽어야 할 성경본문을 다 읽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오로지 학생 스스로의 양심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이 읽지 않고 읽었다고 대답해도 교수는 점수를 줍니다. 질문의 대답은 학생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양심적으로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읽지 않고 읽었다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로부터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성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함과 누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와 세상 사람과 삶 속에서 구별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물질을 모으는데 노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거짓말도 밥먹듯 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신앙의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일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숨기려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어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살이를 잘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자신의 실수가 발각이 되면 재수 없어서 들켰다고 말합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온갖 사기와 나쁜 일은 다 행하며 살아갑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성도들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뢰가 갔습니다. 믿을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성도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이민국에 가서 성도의 영주권 인터뷰에 도와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가지 서류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보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민국 직원이 "저는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편향된 신앙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라는 잘못된되고 편향된 신앙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 대신에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 대신에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게서 난 줄을 알리라"(29절). 요한은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바로 '예수는 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상기시켜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닳는 자녀가 된 것

## AI 감시체제,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집바브웨는 얼굴 인식에 사용될 국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익을 위한 고급 장비 판매는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기술 공유와는 다르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은 전 세계적인

감시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정부들이 국민을 관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중국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될수록 중국의 의제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기술의 시장이다.

또한 전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감시 능력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인공지능은 억압적인 정부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돕는다. 이런 캠페인은 자동화돼 있거나, 적어도 자동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거나, 피하고자 맞춤형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인공지능은 진짜처럼 보이고 들리는 위조된 비디오와 오디오를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을 보강한다. 어떤 정보가 진실이고 허구인지를 교란하는 것은 치열한 선거에서 유용한 전략이다. 후보자는 이 기술을 이용해 경쟁자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정책입안자는 인공지능 체계가 민주사회와 독재정권 하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국가가 중국의 디지털 감시모델을 채택할지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 단지 독재국가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직 중국 기

업만이 이런 기술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써모피서를 포함한 많은 미국기업 역시 끔찍한 정부에게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 능력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의 오용은 독재 국가에만 제한돼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세상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은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애써서 모은 것은 단지 살아 숨 쉬는 동안 위탁을 받은 것뿐이며,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따름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청지기로 태어났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충성된 청지기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세상을 주관하는 철학**  
세상이 말하는 소유에 대한 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함께 사회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부는 노동이나 지식을 동원하여 그것을 모은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한 이름을 새기고 내 것임을 나타내는 행세를 한다. 막스주의는 그것을 천만의 말씀이라고 거부하며, 세상의 부는 당연히 모든 사회의 공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벌어들였을지라도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과연 율법적인 철학인가? 그렇지 못하다.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업과다운에 의해서 세계 경제는 동일한 몸살을 앓게 됨을 본다. 미국 대통령의 SNS상의 한마디가 중국의 증시를 뒤흔들어 놓는 것을 본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익에 대한 추구가 국가에 의해 최대화되기를 소원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 간과된 채 사람이 좋게 나누어 가지려던 이상적인 소유의 개념은 그저 꿈같은 일일 따름이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 죄성을 씻고 벗어지지 않고서는, 결국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될지 몰라도 이 땅의 소유에 목을 맨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종말세상과 소유**  
종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소유의 문제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가질 생각은 우리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선한 청지기라 될 수 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

떠난다. 아무도 그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 빠진 노동과 수고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바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한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으나 과감하게 거절하다가 그 결과 옥에 갇히게 된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한 삶은 오히려 전보다 더 나쁜 환경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는 성실을 다할 뿐이다. 감옥에서도 신뢰를 받았으며 간수의 일을 대신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후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될지 몰라도 이 땅의 소유에 목을 맨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점차 누적되고 쌓여서 나중에는 과로를 하게 되고 결국 건강을 해침으로 병이 들게 될 것이다.  
애초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쌓이고 누적되어 병을 얻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을 터이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방탕, 나태, 게으름, 방종한 삶에 젖어 살았다면 책망뿐이 없다.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망각한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엄중한 진노만 있게 될 것이다.

**복음과 관계됨으로**  
성경은 종말시대에 주인께로부터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며 또한 불변하는 진리이다.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머물도록 유보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대교회)

##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바른 태도

- 청지기, 성실, 충성, 복음



사회 민주주의는 이 둘을 접목한 형태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바람직한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혹자는 자본주의도 막스주의도 결국은 사회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성경은 과연 이러한 세상 철학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들 중 어떤 것을 지지하거나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없다. 아주 단순하게 선언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할 따름이다. 하나님은 돈을 받고서 그 권리를 양도하신 적이 없으시다. 누구에게서 거저 주신 적도 없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이며 착각이다.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다. 이 점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이다.

깨 앞으로 일어날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모든 소유에 대한 재판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누가 충실한 청지기였느냐 하는 심판과 함께, 잘했다 칭찬 받는 종에게 하나님은 그 소유를 재 위탁하는 포상의 날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청지기로서 존재방식**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 시간과 재물, 달란트와 일, 심지어 자녀까지도 맡기셨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물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직분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겨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한다.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시간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유물이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더 많은 소유로 그들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종의 처신이 요구된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실함으로**  
구약 창세기에 언급되고 있는 어린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여 아버지 집을 멀리

에서 백성들이 미혹되어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박게 되고, 주님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결박을 풀고 성경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게 되셨다. 이러한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품소 보여 주시는 것이다.

주님의 생애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성실을 구해야 할 것이다.

**충성됨으로**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다. 성경이 계시하는 충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경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며,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충성은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충성은 모진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충성은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며, 이를 위해 의미있는 인생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 이 땅에서 각기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일일 때 의미 있는 것이다.  
종말시대에 어떤 상황과 현상에 머문다하여도 한결같은 비전과 소망은 한가지이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베풀 한 장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행하는 일과 그의 위치와 존재는 복된 것일 수밖에 없다.  
(12면으로 계속)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교인 장례 시 기도 용어에 대해 질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4항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교인이 별세로 장례 시에 집례담당 목회자 또는 장례순서에 기도를 맡으신 분이 별세한 교인 이름과 교회직분을 써가며 기도함이 장례시 기도용어가 올바른지 상담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온 향촌 직분자를 증경장로, 증경권사, 증경 안수집사라고 '증경'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요?  
-오렌지카운티 부유혜

**A:** 질문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례기도 시에 고인에 대한 이름과 교회직분에 대한 질문과 증경 장로, 집사, 권사 등에 대한 호칭문제입니다. 장례예배 시에 기도 담당자가 “고인이 꼭 천국 가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인의 이름과 교회 명칭은 마지막 천국 환송예배이니 장례식에서 고인의 이름과 과거 직분의 명칭을 부르는 것은 하등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 김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인을 칭하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고 김 아무개 장로님’ 무방...증경 빼고 그냥 장로, 권사로 호칭

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증경장로나 증경집사 등 증경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장로, 집사, 권사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향촌직은 장로와 안수집사만 해당되는 것이지 시무 권사는 향촌직이 아닙니다.

한자의 의미로 보면 증(曾)은 ‘이미, 일찍이’라는 뜻이고 경(經)은 ‘지내다’로, ‘이미 지냈다’는 말입니다. 증경이라는 말은 당나라 시대의 노조린(盧照隣)이란 사람이 쓴 고시에 등장합니다. 노조린이 ‘장안고의(長安古意)’라는 시에서 ‘증경학무도 방년(曾經學舞度芳年)’이란 시어를 썼는데, ‘일찍이 춤을 배우느라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의미로 쓴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증경이라는 단어와 명칭을 전임 총회장을 비롯해 전임자를 존중하고 높이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임 총회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시무장로를 하시다가 은퇴하여 시무장로를 내려놓으신 후에는 증경장로로 주로 부릅니다. 증경이라는 단어는 이미 교회에서 일반화가 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자 단어상으로 볼 때 증경보다 전임 장로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개 다른 교회에서 온 향촌직의 경우 그 명칭을 그냥 장로님, 집사님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사실 자기가 임직 받은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로 온 사람은 아무 일을 맡지 않은 거의 무임 장로나 집사와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교회에 오신지 1년 정도 이상 무휴하게 지내면 당회에서 심의하여 협동장로나 협동권사나 협동 안수집사로 대개 임명을 합니다. 당회가 임명하는 그 때에 가서야 협동장로가 되고 협동집사가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다시 시무장로가 되려면 다시 공동의회를 거쳐 2/3의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네시아의 부울(Buol)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또한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 문화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며 부울(Buol)족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300개 이상의 여러 민족들 중 하나다.

인구 82,000명의 부울은 '고론타로(Gorontalo)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일찍이 산에 정착해 살았

지만 지금은 술라웨시(Sulawesi)섬의 반도(peninsula) 북동부를 따라 곳곳에 흩어져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런 커다란 게 모양의 섬은 일반적으로 산악성 대이며,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됐다. 전형적인 열대우림기후도 이 섬의 특징이다. 술라웨시(Sulawesi)는 필리핀 바로 남쪽 태평양상에 위치하고 있다.

부울족의 땅은 소소한 왕국의 존립과 패망의 역사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이러한 왕정 때때로 더 크고 강력한 군대 형태를 갖춰 전쟁 시에 여러 번 함께 대항하기도 했다. 그들의 단일연합은 그들의 적들로부터 승리를 얻어 안전

을 도모하게 했다.

#### 삶의 모습

부울족이 사는 곳의 동쪽에는 미나도(Minado) 섬이 있고 이웃미나하산족(Minahasans)이 있다. 미나하산족은 네덜란드에 의한 식민지와 크리스천 교육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기독교화 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울족에는 독실한 무슬림들이 남아있었기에 대부분 복음화 되지 않았다. 이 두 그룹들 사이에서는 편견에 의해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지인에 의한 부울 교회는 없으며 지방 크리스천들은 박해가 무서워 부울족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쌀, 옥수수, 야자열매가 부울족의 주식이며, 열대산 마과에 속하는 암과 곡물은 부차적인 농산물이다. 코코넛은 상

업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텃밭과 작살로 호수에서 낚시하기도 하고, "라탄"(야자의 일종)과 "다마"(목재용 삼림)를 수집해 팔기도 한다. 소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말은 사람이 타는 데 사용한다.

인도네시아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8백만 명 이상의 농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바섬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땅과 집과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부울족의 결혼식은 이슬람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중매쟁이에 의해 연결된다. 중매쟁이는 신랑을 위해 신부의 값을 협상하는 책임을 지는데 신부 쪽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액수는 정해진다. 또한 고종 또는 외사촌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때론 친사촌끼리 결혼하는 일도 발생한다. 결혼

후 부부는 일반적으로 첫 아이를 낳기까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 후에는 부모를 떠나 그들 스스로 독립된 집을 갖는다. 부부는 각기 자신의 재산을 구별해 소유하되 결혼 후에 획득한 땅은 서로의 공동재산이 된다.

#### 신앙

이슬람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지배적인 종교이고 전체 인구의 거의 85%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모든 부울족이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례의식과 행동양식에 몇 개의 종교가 섞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힌두교는 인도네시아인의 2%로 집계되며, 약 8%가 개신교도로 알려져 있다. 살아있지 않은 모든 물체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에니미즘)"신앙은 먼 지역의 부울족들에게 남아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울족에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들이 조금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교회성장이나 전도에 필요한 기독교 자료들이 거의 없다.

현재 기독교 영화나 부울족의 언어로 된 방송은 없으며, 부울족을 위해 사역하는 하나의 선교단체가 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은 1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슬픈 것은 그들의 부족어로 된 기독교 복음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부울족은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무슬림 인구들은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행사해 기독교가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고 크리스천들의 영향이 일반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중국 기독교인들 피해 케냐로

중국인 신자들은 중국어로 찬송을 불렀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 중국인 신자는 속옷 수



입업자부터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케냐 철도 건설 프로젝트 운영까지 다양했다. 케냐 현지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의 찬송은 비어있는 사무실의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미국 CNN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아프리카 케냐로 이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인근의 한 부유한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중국 신자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이들은 중국을 떠나 기독교인이 다수(80%)인 케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CNN은 이들이 케냐로 이주한 이유가 중국 공산당이 온라인에서 성경 판매를 금지하고 교회를 철거했으며 기독교 신자들에게 체제 전복 혐의를 씌웠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생명의양식교회 조너선 차우 목사는 "지금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과거엔 아프리카인들의 참여와 주도 아래 운영됐지만, 지금은 대륙을 건너온 많은 중국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생명의양식교회는 서아프리카를 포함해 500곳에 지교회를 두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아프리카에는 지난 20년간 100만명의 중국인이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중국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비율이 높은 케냐는 '가나안'이다.

이은용 케냐 선교사는 1일 "사역지 주변에서 중국 기독교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교류도 한다"며 "초창기 이주한 중국인들이 도로 공사와 건축을 위한 노동자였다면 지금은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를 피해 이주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CNN은 나이로비 주재 중국대사관이 나이로비에 거주하는 중국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이로비의 대표적 중국교회는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출신 목사들이 이끌고 있다.

#### 플로리다주 교사 총기소지허용 개정안 통과

총격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미국에서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학교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대신 교사들에게 보안관 역할을 맡긴 것이다. 민주당과 교육계는 그러나 이 법이 총격사건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의회 하원은 1일 '코치 애런 파

이스 가디언 프로그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애런 파이스는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교 총격사건으로 숨진 풋볼 코치다. 그는 당시 총을 난사하는 범인을 막아서다 희생됐다. 당시 교사, 학생 등 17명이 숨졌다. 사건 직후 만들어진 법안은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들에게 교내 총기 소지를 허가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사도 총기를 소지하게 했다.

법안은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출근할 자격을 얻으려면 사전에 약물검사와 심리평가를 받고 1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에는 80시간의 총기 설명 교육과 총기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8시간의 실전 훈련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부터 교사들을 무장시켜 학생을 지키자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스 코치를 거론하며 "만약 그 코치가 라커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그 녀석을 쏘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건도 끝났다"고 말했다.

당초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법안 통과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지만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화당 소속 척 브래넨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막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사가 오히려 총기로 학생을 공격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마이크 고틀리브 하원의원은 "우리는 학교에서 더욱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괴물로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화당은 미국을 경찰국가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내 여러 학교와 교원노조들도 이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에선 최근에도 종교시설, 학교 등에서 연달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노린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피츠버그의 회당에서 총격사건으로 11명이 사망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다. 학교에서도 총격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의 노스캐롤라이나대 캠퍼스에서는 지난달 30일 총격사건이 벌어져 2명이 사망했다. 아칸소주에선 중학생이 권총을 숨긴 채 등교해 동급생을 쏘는 일도 벌어졌다.

#### 개종협박 항거 부르키나파소 목사 끝내 순교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은 서아프리카의 한 목사가 결국 순교했다. 미국 크



리스채너티투데이(CT)와 한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K)는 부르키나파소 시르가드지에 위치한 시르가드지오순절교회 피에르 우에드라고 담임목사와 5명의 성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우에드라고 목사의 아들과 처남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 12명의 총격을 받았다. 테러범들은 앞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했다. 우에드라고 목사는 생전에도 수차례 협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40년 가까이 섬겨온 이 마을을 떠나기보다 내 신념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키나파소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잦아지기 시작한 2016년 이래 교회가 습격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미, 대북 강경모드 전환가능 신호 보내

미국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가 갑자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꼽으며 북한을 비판했다. 미



국 의회에서도 제재 강화 등 대북 강경론이 거세지고 있다.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에도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은 수십년 동안 주민들에게 지독한(egregious) 인권 침해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하며 지배했다"면서 "이런 학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약 1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고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도 고통받고 있다"면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히면 종종 고문을 받거나 살해된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발표한 이유로 지난주 미국에서 탈북자 단체들과 대북 인권단체 등이 주관했던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북한자유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탈북자와 인권단체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을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을 몰아세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무부는 북한자유주간이 진행됐던 지난주에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북한 발사 이후인 이날 성명을 내놓았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너무 저자세라는 국내의 여론을 의식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경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지난해에도 북한자유주간에 성명을 냈으며 올해 성명 강도가 지난해에 비해 약해졌다는 반론도 있다.

미 의회에서 다시 불붙은 대북 강경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의 강경 분위기가 대북 추가제재의 임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밤(한국시간) 약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통화는 아베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서른 번째다. 만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40차례 미·일 정상회담 또는 통화가 이뤄졌다. 미·일 정상의 밀월을 보여주는 증표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VVD)'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에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 관련 최근 진행상황'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 미, 흉창 공개수배...북 입심서 보호? 추기범행 방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창을 체포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가 수배 전단(사진)까지 배포했다고 미 A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방송이 공개한 수배 전단에는 사진과 함께 그가 사용했다는 '오스왈드 트럼프' 등 가명이 적혀 있었다. 또 그가 무장한 상태에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과 접촉할 경우 신고하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미 정부가 홍창을 뒤쫓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월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과 관련해 스페인 법원이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배의 속내는 홍창 보호와 추가 범행 방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조선의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최근 CNN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홍창과 다른 자유조선 멤버들을 해치기 위해 암살단을 보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당국이 북한 암살단으로부터 홍창을 지키기 위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홍창이 제2의 도발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체포에 나섰다는 설명도 있다. 미 정부의 자유조선 소탕령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과 국무부 간 갈등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홍창은 스페인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FBI 요원에게 북한 관련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조선의 활동이 '미국 배후설'을 불러올 수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한 국무부가 FB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자유조선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유조선이 사건 초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심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자유조선이 스페인 북한대사관에 들어간 것은 미 정부와 상관없는 단독 플레이"라면서 "미 정부가 '자유조선 배후설'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강경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개혁의 불씨

개신교의 역사는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되었다.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장본인들이다. 그 후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가장 간단하면서 분명한 답은 중세교회는 1000년이란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갑작스런 일이 아니었다. 개혁을 통과하지 않은 채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사'가 16세기의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 일부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종교개혁의 시작을 1517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교회 말기에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쳤던 소수로 개신교의 출발이 가능하였기에 그들이 지녔던 사상이 어떠하였는지 소개하는 일을 중요시 다룬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영국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 1320-1384)이다. 그의 개혁 사상은 향후 체코의 얀 후스(Jan Hus, 1372-1415)와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과 같은 개인들과 롤라드파(Lollards)와 같은 복음적인 신앙운동 단체에게 계승되고 실천하기도 하였다.

위클리프의 개혁적인 사상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글과 가르침에서 쉽게 발견된다. 종교개혁이 개신교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시기보다 약 150년 전에 교회를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4세기 개혁자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불씨, 종교개혁의 새벽별, 또는 광야의 선지자로 간주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생애를 16세기 종교개혁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그가 끼쳤던 교회사적 공헌을 경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클리프는 14세기 영국이 처하였던 독특한 상황 속에서 교회개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지녔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과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글을 통해 얻었지만, 개혁적인 정신을 되새기게 하였던 의문점은 그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생겨났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요크셔 지방의 소영주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수월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았는데, 그의 명석함으로 인해 학자로서의 주목을 받아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기도 하였다. 1363년 석사 학위를, 1372년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동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위클리프의 개혁적 사상 배경에는 철저한 철학적 훈련으로 무장된 실력이 있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유명론과 실재론으로 대조되어 있었으나,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또는 윌리엄 옥칸(William Occam) 등으로 대표되는 유명론이 대세를 이

있었다.

지배론과 성찬론

위클리프가 교수생활을 하던 옥스퍼드 대학은 당시 지적 활동의 중심지였다. 지식인으로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학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자신들의 유익에 위배되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여한 지배권과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유익과 부를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1377-78년 사이에, 그는 3번 유죄 판결을 받고 교권에 의해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1377년, 종교회의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 받았다. 나아가서 교황 그레고리 11세는 캔터베리 대주교, 런던 주교, 영국 국왕,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총장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 위클리프 사상을 경계하라고 고하였다. 나아가서 그의 가르침이 퍼지지 않도록 철저

스도의 몸과 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저급한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일이라는 그의 주장은 교회 지도자들을 크게 자극하기도 하였다.

개혁을 향한 외침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은 그 당시 그가 경험하였던 교회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었다. 14세기 영국은 사회적 과도기를 맞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봉건제도가 소멸되고 중산 계층이 성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모습을 고집하던 교회의 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의 힘찬 걸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100년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의 각 국가에 새로운 의식이 심어졌다. 그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노력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 역시 유럽 전역에 퍼졌다. 동시에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영국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것은 1381년 농민반란이다. 백년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두세를 부과하자,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비록 왕의 군대가 반군을 분쇄하였지만 아직까지 영국인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힘을 대항하는 정신이 깊이 새겨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위클리프는 그가 1780-81년 사이에 작성한 3개의 작품- '성직 매매에 관하여', '배교에 관하여', '신성모독에 관하여'-들에 근거하여 농민 봉기의 배후라고 정죄를 받았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에서 축출을 당한 뒤 사망할 때까지, 레스터셔의 작은 마을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개혁적인 글을 남겼다. 그의 사상이 시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교황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도 다수가 그의 사상을 추종하였다.

그는 1382년 12월 31일,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뇌일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러나 1415년 5월에 개최된 콘스탄스 회의(Council of Constance)에서 그가 작성한 글에 나타난 260개의 전제를 정죄하였다. 1428년 3월, 중세 가톨릭교회는 그의 시체를 파내어 형을 집행하였다. 뼈를 태워 남은 재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다. 왜 그리해야만 했을까? 위클리프의 사망한 후에도 개혁에 대한 외침이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반증이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3)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루고 있었다. 초기에는 위클리프도 유명론을 따르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바꾸어 실재론자가 되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적 확신과 고백이 있었다. 그는 유명론자들이 실재에 있어서 오직 개별자만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보편개념과 일반개

교황과 교회의 입장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동기는 그의 철학적 사고에 기초된 '세속 지배론'과 '성찬론' 때문이었다. '세속 지배론'은 모두 3권으로 작성된 그의 논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히 주의할 것을 명령했다. 성찬 논쟁은 1380-1382년 사이에 벌어졌다. 그 결과 위클리프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 받았으며, 1382년에는 옥스퍼드에서 축출당하기도 하였다.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교권확립을 위해 정통교리로 자리하게 한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성

종교개혁 불씨 위클리프,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존재 일부... 따라서 영원불멸 확신" 종교개혁자 사이서도 이견 낳은 성찬관으로 축출 당해

념을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위클리프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존재의 일부이며, 따라서 영원하고 불멸하다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개인 구원과 사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교리가 보편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실재론은 그의 개혁적 사상 중,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실체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교황과 사제들의 위치가 절대적인 시기에, 그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주장할 수

지배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맥락에 두었던 그의 지배론은 결코 새로운 사상이 아니었다. 전통적 중세의 원리인 '신적 의'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교황이나 성직자를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교황이나 세속 왕의 의도에 의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서 교황의 수장설과 무오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클리프의 사상은 매우 개혁적이었다. 성도들을 섬기도록 권한을 부

찬관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낳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위클리프가 주장한 성찬론은 축성 후에도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스코투스의 스킨라 철학을 뒷받침한 화체설은 양이 물리적으로 외부의 형태를 보존하는 힘이 되기에 본래의 실체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실체가 없이 외양이 존재할 수 없으며, 화체설은 어거스틴의 전통교리에 미신적 요소를 첨가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성찬 논쟁은 철학적 사고의 차이로 출발되었지만 대단히 커다란 논란을 불러왔다. 사제의 축성이 그리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featur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Worldwide Church Directory' and 'Worldwide Church Directory'.

# 성경도 신앙(78)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방언들을 가진 각 개인이 이 한 새로운 몸, 이 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아졌고 그 나라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문화를 신약 안에 있는 기독교회에 바로 전이시키는 것은 성경에 역지를 가하는 태도로서 혼란을 일으키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무리한 억지라고 할 수 있다.

구약성경을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신약에 바로 단순하게 전이할 수 없다. 구약시대의 국가는 그 나라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경륜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롬1:3)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는 순간에 새로운 원리가 작동되어 전 세계에 흩어지던 모든 족속들 속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구약성경에서 보이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연합관계는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 동전을 내밀

3)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위한 인공구절은 구약의 구절들

신약고백에 있는 성경의 참고구절들은 이사야 49장 23절, 시편 122편 9절, 에스라 7장 23, 25-28절, 레위기 24장 16절, 신명기 14장 5-6, 12절, 열왕기하 18장 4절, 역대상 13장 1-9절, 열왕기상 23장 1-26절, 역대하 34장 33절, 25장 12-13절, 19장 8-11절이다.

그리고 말씀의 교리와 말씀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에 관한 이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약성경을 오직 한번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 4-5절이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2절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며, 4-5절에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 것인가 물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작성자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지고 그 작성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행정부 사람들과 국가가 기독교회의 일에 간섭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두려운 일이며, 우리는 서로 불일치를 보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웨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가 신약성경에는 이 문제를 위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구약성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벨직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의 36항 대목도 구약성경에서만 참조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 대목의 각주에 “이 조항은 다른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는 조항들과 같이 국가와 교회의 연합이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에 이르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콘스탄틴 황제와 로마제국으로 인해 도움을 입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로마 카톨릭교회나 영국 감독교회들의 예배 안에서 보듯이 의식들이나 예복들을 교회 예배 속에 끌어들이는 문제에서 그들은 구약성경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

4) 구약의 국가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대처됨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 동일한 한 사람이 국가의 성원도 되고 교회의 성원도 되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테반이 말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마저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의 직무자들과 국가의 직무자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백성은 동일하였지만 영역은 둘이었다.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그 점에서는 분명하다. 어떤 왕들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역할들을 스스로 취하여 감당하였다가 무서운 방식으로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경우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 주님 구속사역 후 교회와 국가 사이 연합관계는 중단 구약의 국가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대처됨

한 백성을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한 나라이지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는 모든 것은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그것은 예비적인 것이다. 신약성경으로 나아가 갈 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더 이상 그런 예비적인 것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에 그 나라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선고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고 선고하신다. 신약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것은 다른 아닌 기독교회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적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이다.

5) 세상 나라(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국가)의 본질적인 차이

기독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와 같이 더 이상 한 족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혈통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나

자 주님께서는 “누구의 형상과 같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치셨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이 본질적인 차이를 확증해준다. 주님의 나라는 더 이상 지상의 국가적인 개념과 같을 수 없다.

younsklee@hot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서시력대학교 교수)

## 세월 앞에서

한 달 전 주일 새벽, 교회로 가는 길에 텍스트 메시지가 왔다. 30여년 전 섬겼던 뉴저지 교회의 장로님 딸이 갑자기 천국에 갔다는 메시지였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나이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갖 사십이 넘는 장로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늦게까지 짝을 못 만나는 딸의 결혼을 위해서 권사님은 금식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일년반 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하셨다. 세 자녀 중 막내를 이미 30여년 전 아기 때 잃으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 남편이 떠난 후 긴 세월 동안 나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애장했던 장로님, 권사님이다. 작별인사도 못한 채 다 큰 딸을 앞서 보내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격정이 되었다. 뉴욕에서 있는 장례식에 참석하기는 먼 길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주 중에 잡혀있는 약속들을 취소하고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샀다.

공항에서 서둘러 간 입관예배 장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앓을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뻘뻘이 서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린 채 예배를 드렸다. 대학 졸업 후 20년을 줄곧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기에 회사 부사장을 비롯해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평소엔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것은 알았지만 직장 동료, 상사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 딸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을 주었는지를 나누었다. 그 분들의 말을 들으며 장로님 딸이 짧은 삶이었으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잘 살았던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슬픔 중에도 감사했다.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온 헌신된 분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장로님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여러 번 뉴저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옛 성도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었지만 장례식에 참석한 옛 성도들의 자녀들을 30년 만에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요즘에는 강의 듣는 학생들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해 하면서도 웬일인지 30년 전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 이름은 얼굴을 보니 “어머, 별야야, 한나!, 샬리니?” 하면서 줄줄이 기억이 났다. 며칠 간 머물기로 한 어느 장로님 댁에 도착하니 옛날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계셨다. 남편이 유난히 편안해 했던 장로님인지라 주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장로님 집에 가자”고 하며 마치 친척집 가듯이 드나들던 때이다. 저녁식사를 즈음에 갑자기 가겠다는 목사님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을 권사님 마음이 헤아려져서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던 남편은 따뜻한 정이 그리웠던 것 같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친척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받는 이민목회의 스트레스를 반감게 맞이하는 장로님의 환대와 권사님의 된장찌개로 풀었겠구나 싶다. 옛날에는 좋은 동네에 위치한 큰 집이었던 장로님 댁도 벗겨진 페인트와 오래된 샤워룸, 옛날 장식들로 흘러 간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있었다. 집안 이곳 저 곳을 보며 30여년 전 추억들을 더듬었다. “당신이 이 의자에 앉아 있었지, 이 식탁에서 저녁식사를 자주 했었지.” 이미 오래된 옛 기억 속의 남편을 떠올리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치유된 줄로 알았던 상상의 아픔이 새삼 뼈속까지 머리를 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10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p><b>뉴욕몽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 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Fax: 중흥),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남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원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 목회서신

## 성경적 유머



이재근 목사  
(주사라산교회 담임)

힘들고 어려운 광야같은 인생사와 비정하고 무정하고 매정하여 따뜻한 정과 사랑이 없는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신앙 생활에 활력의 촉매제로 몇 가지 성경적 유머를 편집,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주님의 뜻

성경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점을 따지기 위해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읊을 시험했을 때, 그가 가진 것들을 죄다 앗아가면서 유독 아내만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어째서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읊을 시험하시고 나서 그로부터 앗아간 것들을 죄다 곱으로 돌려주셨어요. 만약 아내도 앗아갔더라

면, 아내도 돌아 돌려줘야 했을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런 벌을 내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라고 목사가 말했습니다.

#### 2.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느 목사가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사자에게 도망을 갔지만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사자가 자신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을 아신다면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쫓아오던 사자가 멈추는 것이 아닌가! 목사가 한숨을 쉬며 안심할 때, 사자

가 점점 목사에게 다가와 하늘에 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 3. 천당 가기 싫어?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 들어 보라.” 그러자 모든 꼬마들이 손을 들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천당 가기 싫어?” 그러자 철수 왈 ~, “엄마가 유치원에서 곧장 집으로 오랬어요.”

#### 4. 거짓말 하는 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 설교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

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왔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읽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꾸벅꾸벅 졸던 아줌마 집사님과 판 생각하던 대학생들 비롯해 대부분의 신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들 미리 읽고 오셨군요...”, 신도들: “아-멘-”, 꾸벅꾸벅 졸던 집사님: “주여! 가암-사 합니다.” 목사님은 웃으면서 말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 5. 긴 기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길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난후 교인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께 “교인들은 다 어디갔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왈, “어허, 노아홍수 때 다 떠내려 갔습니다.”

#### 6. 시어머니의 오해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

히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를 부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흥! 그것 다 왕내송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요, 이 시어미를 이겨 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여쭙어 보았습니다. “무슨 노래였는데요?” “거~ 뭐라드라... 너 시어미 당해 범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어미 이겨 새 힘을 얻고...”

#### 7. 컴퓨터 주기도문

하드 디스크에 계시는 우리 프로그램이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운영체제를 임하옵시고,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모니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불시의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엔터.

8. 가장 행복한 여자  
목사님이 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만 들어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브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브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 성모 마리아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9. 창조의 섭리

어느 날 한 남자가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께서 왜 여자를 저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신이 답했다. “그래야 네가 사랑할 테니까.” 남자가 또 다시 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너를 사랑할 테니까.”

#### 10. 현금함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길어진 설교에 지겨워진 아이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현금함에 지금 돈 내면 목사님이 나가게 해줄까?”



제40회 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역대 총회장들에게 스톨을 증정하고 기념촬영 했다.

## “본질을 회복하자”

### 제40회 미주성결교회 총회, 새 총회장 김용배 목사

제40회 미주성결교회 총회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워싱턴 한인성결교회에서 열려 새 총회장에 김용배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김동욱 목사를 선출했다.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표어와 “40년의 성장”과 “100년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150여명의 대의원들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는 총회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12가정을 초청해 4월 30일 저녁 ‘선교사 초청의 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미와 중

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등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사 소개와 함께 생생한 선교보고로 큰 도전을 줬다.

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역대 총회장들에게 총회장을 상징하는 스톨을 증정했고, 대의원들의 친교를 위해 불림대회, 족구대회 등의 스포츠 행사를 가졌으며 워싱턴 관광도 있었다.

5월 1일 저녁 목사임직식에서는 7명이 안수 받았다.

또 증경총회장인 황하균 목사(뉴욕소망교회)가 뉴욕성결

신학대학교 새 총장으로 승인 받았다.

이번 40회 총회를 이끌어 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용배 목사(북가주지방, 실로암교회) △목사부총회장 김동욱 목사(캐나다지방, 큰 나무교회) △장로부총회장 장석면 장로(중앙지방, 뉴욕성결교회) △서기 문광수 목사(중부지방, 워싱턴한우리교회) △부서기 안중기 목사(남서부지방, 임마누엘힐로우교회) △회계 송상래 장로(중부지방, 워싱턴한인성결교회) △부회계 김강환 장로(중앙지방, 뉴욕성결교회).

또 관심사였던 총무에는 이홍근 목사(잔스크리교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연임됐다.

미주성결교회는 1907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한국 땅에 전파해 한국의 복음적인 교단으로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모체로 1970년 11월 7일 안수훈 목사와 교인 26명이 나성성결교회를 설립해 시작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예장 미주합동총회 제40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총회”

### 예장 미주합동총회 제40회 정총, 총회장 강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제40회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알라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인렛 타워(INLET TOWER) 호텔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총회”(살전2:4) 라는 주제로 목사, 장로 총대와 사모 포함해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강인중 목사 사회로 경배와 찬양에 백 현 목사, 기도예배에 김명우 목사, 성경봉독에 회의록 부서기 최인화 목사, 설교에 총회장 한선희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살전2:108)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최순길 목사의 집례로 “무엇을 먹고 마실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분방, 분전에 지윤성 목사, 신인석 목사도 수송 들게 하고 성찬예식을 마치고 서기 정종섭 목사의 광고와 증경총회장 정고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 기간 중에 세계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장 한선희 목사를 강사로 “이단, 무엇이 다른가? VOL II”로 작년에 이어 이단대책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총회장: 강인중 목사 △부총회장: 정종섭 목사 △장로부총회장: 박상구 장로 △서기: 권대근 목사 △부서기: 김명우 목사 △회의록부서기: 이광열 목사 △회의록부서기: 이정민 목사 △총무: 지윤성 목사 (기사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합동해외총회 미동부노회 창립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합동 해외총회 미동부노회 창립예배

### 1개월전 뉴욕노회 탈퇴...노회장 황정옥 목사

강유남 목사(주예수사랑교회) 등이 새로운 노회를 창립했다.

1개월여 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를 탈퇴한 강유남 목사(주예수사랑교회) 등은 5월 6일 오전 11시 주예수사랑교회에서 “미동부노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노회를 시작했다.

창립 노회에서 추대된 임원들은 아래와 같다.

△노회장 황정옥 목사 △부총회장 양경옥 목사 △서기 김상용 목사 △부서기 유재식 목사 △회의록부서기 김창주 목사 △회의록부서기 황용석 목사 △회계 김환장 장로 △부회계 김봉택 장로.

창립 노회의 회무 처리는 임시회장 강유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유남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경륜만 이뤄드리는 보수정통 신앙과 성경적 신학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향적인 노회가 될 것”이며 “지교회를 중심으로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는 노회, 말씀중심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나누고, 희생하는 예수님 닮는 사랑의 노회 공동체를 이뤄 하나님



미주장신대에서 열린 박동식 교수의 저서 '마가복음 읽기 일상과 신앙' 북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마가복음 읽기 일상과 신앙’

### 미주장신대 박동식 교수 북콘서트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최근 ‘마가복음 읽기 일상과 신앙’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본교 박동식 교수(조직신, 기독교인문학평신도대학 디렉터)의 북콘서트가 4월 29일 오후 12시20분 본교 체플실에서 열렸다.

김루빈 교수(학생처장) 사회로 시작된 북콘서트는 이상명 총장이 축하했으며 박동식 교수가 책을 소개했다.

이상명 총장은 “마가복음 읽기 일상과 신앙이라는 책은 일상의 언어와 영성의 신학으로 풀어낸 기도의 묵상”이라 소개했다.

박동식 교수는 “이 책은 일상의 간절함을 담은 책”이라

소개하며 “오늘날 기독교의 하락은 하나님나라와 이 땅, 주일과 평일, 교회안과 밖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은 큐티모임과 나성영락교회에서의 특강, 그리고 신문사에 게재된 칼럼 등을 바탕으로 출판된 것”이라 말했다.

박 교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보기 힘들다. 일상의 회복이 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 신자로 살아야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변화산 사건에서 모든 것이 건

한 다음 남은 것은 오직 주님 뿐이었다. 주님만 믿고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신비에만 사로잡히면 일상이 사라진다. 누군가는 평온하지만 누군가는 다급하다. 평안할 때 다급한 삶을 봐야한다. 예수님의 삶속에서 평안하다면 아픈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은 교회 안뿐 아니라 일상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평은 정구정 전도사(본교 M.Div)와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본교교수)가 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남가주사랑의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 참관 등

### 국제제자훈련원 주최 미주26기 제자훈련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 주최 미주 26기 제자훈련세미나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노장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현장참관 시간, 온전론, 교회

(11면으로계속)

(기사제공: 합동해외총회 미동부노회)

# 동부교계 게시판



## 제 14회 바이블 비 페스티벌

제 14회 바이블 비 페스티벌이 "Sweeter Than Honey"(시119:103) 주제로 6월 2일(주) 오후 6시(개인예선전 5시30분)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PK-6학년(3-12세),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이 주최하고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종대 목사)가 주관한다.

▲문의: 최종대 목사 312-286-4646, bigbell59@gmail.com

## 제 1회 로고스 1일 세미나

뉴욕 뉴저지 로고스 사용자 모임이 주최하는 제 1회 로고스 1일 세미나가 5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소망교회(451 Grand Ave., Palisades Park)에서 열린다. 강사는 조재원 목사(에셀교회), 선작순 15명(로고스 설치된 노트북 준비 필수, 테블릿 스마트폰 선택)에 한한다. 회비는 20달러이며 뉴저지교협과 목사회가 후원한다. 참가신청은 <https://forms.gle/TPQgBf7sN5WWqM3D9>에서 하면 된다.

▲문의: (201)982-9990



뉴욕목사회가 미동부 5개주 체육대회 예비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했다.

## 미동부 5개주 체육대회 예비모임 뉴욕목사회, 친목 바비큐 파티 겸해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오는 13일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미동부 5개주 체육대회 예비모임 겸 친목 바비큐 파티를 가졌다. 7일 오전 10시 알리폰드 파크에서 열린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진화 목사 인도로 기도 김희숙 목사(회계), 성경봉독 박드보라 목사(감사), 설교 박태규 목사("힘을 다하

여", 전 9:10), 광고 박시훈 목사(서기), 축도 양승호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예배 시작 시 찬양인도는 김정길 목사가 담당했다. 예배 후에는 체육분과위원장 이창남 목사가 행사준비 인사말과 5개주 체육대회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 회장 구자범 목사, 수석부회장 변창국 목사 미주동부 총신대원동문회 정기총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 총회가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뉴욕광영교회(구자범 목사)에서 열려 새 회장에 구자범 목사가 선출됐다. 구 목사는 "신장이식 후에 건강이 좋아졌다"며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인사했다. 회장 이재철 목사(필라델피아 선교대 대표)가 가족장례 참석이 한국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해 1부 예배는 변창국 목사(부회장, 81회) 인도로 시작했다. 기도 정광희 목사(부회장, 82회), 특순 구분하 형제, 말씀 구자범 목사(수석부회장, 80회), 헌금기도 박영수 목사(회계, 90회), 광고 이윤석 목사(총무, 80회), 축도 조정우 목사(63회) 순서로 진행했다. 구자범 목사는 "꿈꾸는 사람들"(행2: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개척 초기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하는 목회를 하게 됐다"며 "본문에서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성령 받은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인(어른들, 장로)들은 어떤 꿈을 꾸는가? 성령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 어른들이 꿈꾸는 것(비전)은 쉽지 않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왔던 꿈을 우리도 꾸고 자손들, 성도들에게 보여주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모두가 되자"고 말했다. 2부 총회에서는 총수입

9,547달러, 총지출 8,792달러, 잔액 752달러로 박영수 목사가 회계보고 했다. 사업보고는 1)랭카스터 밀레니엄 디어터 관람 2)가을수양회 3)신년하례회 4)이단대책 세미나 등을 이윤석 목사가 보고했다. 회칙 개정에서 정기총회 일자를 5월 둘째 주 월요일에서 1월중으로 다시 결의했다. 공천부가 공천한 임원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장 구자범 목사 △수석 부회장 변창국 목사(뉴욕헤브지교회) △부회장 정광희 목사(뉴저지영광장로교회), 이규섭 목사(제자삼은교회) △총무 이윤석 목사(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회계 김홍선 목사(새 은혜교회) △서기 남일현 목사(뉴욕 든든교회). 협동총무들은 회장단에 임하기로 했다. 이어 뉴욕광영교회가 준비한 오찬 후에는 집례인에서 불림대회를 가지며 친목을 다졌다.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에는 총 114명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난 6일 뉴욕교협 '성령화 대성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원들과 강사 일행들이 기념촬영 했다.

## 성령의 역사를 뉴욕에서부터!

### 뉴욕교협 "성령화 대성회" 앞서 기자회견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5월 10일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성령화 대성회"를 앞두고 6일 오후 2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사 윤보환 목사 일행의 뉴욕 도착시간에 맞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보환 목사(인천 영광교회)는 "이번 집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아마도 지난 21년간 신사참배 회개를 외치며, 지난해 민족전체가 회개 집회를 하게 되고 올해 3.1운동 100주년 집회를 연합으로 하면서 민족 계몽과 교회 복음화, 청년세계화 운동을 해온 것이 이번 집회까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세계의 중심지 뉴욕 집회를 통해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뉴욕교협 45회기의 주제 '성결한 삶'에 맞춰 준비한 이번 집회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파함으로

뉴욕 교계 뿐 아니라 한인사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외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도 "교협의 모든 행사가 '성결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주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번 집회 역시 교회 영적 갱생을 위한 전무후무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회장 양민석 목사는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한다"며 "이번 집회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집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보환 목사는 싱가포르 선교 10년 후 귀국해 200년 영광교회를 개척, 개척한 해에 자립하고 교회성장을 이뤄 2014년 성전 건축을 이뤘다. 또 2016년 최연소 기감 감독에 취임했다. 이번 집회는 10일(금), 11일(토) 저녁 7시30분, 12일(주일) 저녁 5시30분 프라미스교회(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7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노회장 주효식 목사, 부노회장 김충전 목사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7회 정기노회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7회 춘계 정기노회가 4월 29일 오후 4시 뉴욕정원교회(주효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부노회장 주효식 목사가 노회장으로, 부노회장은 김충전 목사(브라운스빌한인교회, TX)가 선출됐다. 신임 노회장 주효식 목사는 "이 자리가 저에게 맞지 않는 자리라 갈등과 고민이 많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순종해야 하는데 특별히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제 주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며 "즐겁고 감동 있는 노회, 모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노회, 법을 따질 필요가 없는 성숙한 노회가 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신임 주효식 노회장은 서기 장규준 목사를 유임시켰으며, 고시위원장으로 이종명 목사를 지명했다. 기타 조직은 이후 노회 단체대회방에 보고하기로 했다. 회무는 송원섭 목사(증경 노회장)의 기도 후 노회장 한준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부 보고 순서는 전 회의록 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 시찰보고로 진행됐다. 애틀랜타 시찰은 보고에서

지역의 3배여 교회 중 성장하는 교회는 2개 정도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또 스미용조와 이성우 노회 선교사 청원 삼은태혁 강도사 인허와 목사고시 청원 삼박훈식 목사 교단탈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캐나다지역 신학교(이승남 목사) 노회인준은 10여 년째 정기노회마다 다뤄지고 있다. 지난 가을 정기노회 회의록에도 "차기 노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노회장이 요청"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노회원들이 결정에 참고할 자료가 없어 다음 노회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1부 예배는 사회 장규준 목사(서기), 경배와찬양 하동호 목사, 기도 김학식 목사(아를란타경서교회), 설교 한준희 목사(노회장), 예물드림 감사 기도 서문도 목사(회계), 축도 합성은 목사(증경 노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성찬예식은 주효식 목사(부노회장)의 집례로 진행됐다. 한준희 목사는 "나에 대한 정체성"(요1:12-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가 됐다면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정체성이 없으면 목사답게 살지 못한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자책만으로도 감격스럽다. 교회를 크게 건축한다, 성도를 많이 모은다, 선교를 많이 한다는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백석대신)

##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제

### 뉴욕갯세마네교회 성회, 강사 조현배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이지용 목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조현배 목사(서부한인교회 원로)를 강사로 춘계부흥회를 열었다. 조 목사는 첫날 저녁 "기도할 수 있습니다"(출17:8-16), 둘째 날 새벽 "본향이 있습니다"(히11:13-16), 저녁 "사명이 있습니다"(행20:24), 셋째 날 새벽 "올라갈 수 있습니다"(사40:27-31), 저녁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강사 조현배 목사는 4월 22일부터 나흘간 열린 C&MA 한인총회 제36차 정기총회에 감독으로 추천됐으나 당선에 필요한 회원 3분의2 지지를 얻지 못했다. 조 목사가 감독 당선 후에 집회를 인도했다면 금상첨화였으나 오히려 이번 집회가 조 목사에겐 가세마네교회 성도들에게나 은혜가 더한 집회로 기억됐다. 조현배 목사는 성회 마지막 날인 27일 저녁 "지난날을 돌아보니 성공과 기쁨도 경험했다. 동시에 실패도 좌절도 경험했다. 어느 듯 세월이 흘러 은퇴를 했고, 지금은 미국병원에서 채플런으로 일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환경을 바꾼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일

하는 장소와 종류에 상관없이 나와 주님과 의 관계가 올바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배 목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언급하며 "육신의 생각을 바꾸고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된다. 교회 근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뉴욕에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행동도 바꾸어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면 개인도 축복을 누리고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크게 도약하게 된다"고 교회를 축복했다. 한국에서 목회하던 조현배 목사는 시카고에 있던 막내동생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서부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청빙을 받고 1990년부터 27년 동안 이민목회를 했다. (기사제공: 뉴욕갯세마네교회)



조현배 목사를 강사로 한 뉴욕갯세마네교회 부흥회에서 강사의 인도에 따라 담임 이지용 목사에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와 뉴욕가정상담소 공동주최로 열린 제 2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마치고 주최측과 강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 가정폭력은 범죄...전문기관 도움 필요

### 뉴욕청소년센터 & 뉴욕가정상담소 제2회 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와 뉴욕가정상담소 공동주최로 열린 제 2회 목회자 컨퍼런스는 '사랑과 정의 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진행으로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의 오프닝 기도로 시작돼 기조 강연자로 뉴욕상담소의 Sue Kim 웰터 사회복지사와 주재영 상담부디렉터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정폭력의 정의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시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이날 강사들은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패널 세션에서는 가정폭력의 사례 중 아동보호법과 한인교회커뮤니티 내에서의 가정폭력 인식 높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뉴욕시경 Tommy Choi와 법조계 남수경 변호사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했고 박희진 109경찰 대외형사와 John Mason(KAOA President)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정보와 사례들을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 <8면에서 계속>

장로님 딸의 장례식을 마치고 온 날 밤, 침대에 누워 뒤척거리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을 뒤로 돌아간 것처럼 옛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 우리 삶은 지나가는 것이지. 새로운 것, 젊었던 것도 시간과 함께 낡고 늙어가는 것이지.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

은 떨어지고 어느 날 아버지 앞에 홀연히 서게 되겠지. 너무나 확실한 삶과 죽음의 진리를 왜 이리 쉽게도 잊고 사는 것일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남는 것은 사랑뿐이지. 주님을 향한 그리고 곁에 두신 사람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사랑만이 영원히 별처럼 빛나며 남아있겠지." lpyun@apu.edu

# 'LOVE ONE ANOTHER' 주제

## 제 68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개최

제 68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가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 커뮤니티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일 오후 7시에 15분 나 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LOVE ONE ANOTHER'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교회협의회, OC목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와 나성순복음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협



제68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이 단상에 올라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장은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연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기도회

를 통해 남가주는 물론 미주의 4700여 기도 처소에서 기도가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개리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영상으로 환영인사를 전했으며 김완중 LA총영사 축하인사를 했다.

윤우경 총괄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이 성경 봉독했으며,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지휘 최원현)가 특송한 후 진유철 목사가 '생명을 심으면 역사는 일어난다'(막14:30-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 목사는 "하나님나라는 예수생명 믿어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보잘것없고 약할지라도 예수생명이 있으면 하나님나라가 놀랍게 나타나고 성장하게 되며 이 땅이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 말했다.

진 목사는 "최근 반기독교 흐름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있고 47,000여 곳에서 기도하기에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국가기도의 날 함께 모인 우리들이 기도해 이 시대 새 역사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한인교계 지도자들과 남가주 평신도 리더들이 나와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 미국을 위한 기도를 △민중기 목사(나침반교회)가 캘리포니아주 LA를 위한 기도 △한기형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로 진행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회개와 거룩성과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밖에 가정과 학교, 교회와 문화, 사회 정의 등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들,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 연방의원, 주의원, 군 지도자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LA시장, 시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를 필두로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이 단상에 올라 축복기도를 함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회 게시판

## 나성금란교회 2019 부흥성회

나성금란교회(이석부 목사)는 2019 부흥성회를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라는 주제로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곽주환 목사(베다니교회)이며 일정은 17일(금) 저녁 7시30분, 18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19일(주일) 오전 8시, 11시 오후 1시30분. ▲문의: (310)973-5106

## 사랑의빛선교회 금요영성집회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금요영성집회를 10일(금) 오후 7시 45분에 갖는다. 이번 영성집회 강사는 이국진 목사(한국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문의: (626)744-9191

## 소중한교회 시온찬양의 밤

소중한교회(김기동 목사)는 시온찬양의 밤 행사를 10일(금) 저녁 8시에 갖는다. ▲문의: (714)990-9191

## 부목사 청빙

남가주살롬교회(김준식 목사)는 한인사역(KM)을 담당할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PCA교단 가입과 취업에 합당한 신분으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이상 목회경험자. ▲문의: (213)820-7919 박진호 장로

# CCC 설립 및 NLVC 오케스트라 창단

## 새생명비전교회...CTS America기독교TV 문화사역팀 함께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설립한 Center for Christian Culture(디렉터 박선규 집사, 이하 CCC)가 아름다운 첫 발을 내딛는다. 그 일환으로 CTS America기독교TV 문화사역팀이 함께해서 더욱 풍성한 찬양의 잔치가 마련된다.

찬양 잔치를 통해 모여진 모든 수익금은 CCC를 통해 레슨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장학금과 악기 대여금으로 사용된다.

박선규 디렉터는 "저희 CCC가 이웃을 섬기며 복음전파에 앞장서는 크리스천 기관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박 디렉터는 "CCC에서 음악교육을 받는 한인학생 뿐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한인들이 미국이란 이 땅에서 사회봉사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CCC의 모든 수업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모든 교사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목은 △NLVC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린이 합창단 △성악반 △키보드 클래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Toddlers First Music Class △ESL 영어클래스 △Spanish Class △기타 클래스 △CCM 밴드 △뮤직 세미나(강사초청 오페라, 성가, 오케스트라, 피아노 뮤직, 록 리사이틀 등) △성가대 세미나 △지휘자 세미나 △작곡



및 음악이론 △복클럽 △국악반 △개인레슨반(모든 악기 취미반 & 전공반)이며 인기클래스는 성인반과 어린이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 앞으로 무용, 바드위십, 연극, 글쓰기반, 미술반으로 그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CCC에서는 NLVC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NLVC 오케스트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음악, 예술 교육과 펠로우십을 통해서 복음전파 △크리스천 문화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 및 환원이라는 목적으로 창단했으며 새생명비전교회 2부 예배 및 절기예배를 더욱 풍성함과 공교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된다.

NLVC크리스천 문화센터는 주님의 마음으로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기관이다. 경제적인 상황, 연령 및 재능 유무를 초월해 음악을 통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한편 오는 18일(토) 오후 7시 CTS 아메리카와 CCC가 함께하는 2019 희망나눔콘서트 가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818)331-7560, (323)810-3777로 문자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위로밴드 두 번째 싱글앨범 발표

## 하늘 위로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노래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노래하는 '위로밴드'(WIRO BAND) 두 번째 싱글앨범 '내가 밟는 곳마다'가 지난 4월 25일 발표됐다.

세월호 사건일과 부활절이 맞닿았던 2017년 4월 15일, 세월호 추모곡 Where Are You로 첫 활동을 시작한 위로밴드는 CCM에서 보기 드문 탄식의 찬양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이번 '내가 밟는 곳마다'는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날 붙드는 주의 약속, 날 인도해네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라는 후렴구 가사를 통해,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노래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격려를 받는 은혜의



찬양이다.

이사가 61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작곡가 임보라와 싱어송라이터 서린이 찬양을 통해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길 소망하며 결성한 CCM 밴드이다. 위로밴드의 '내가 밟는 곳마다'는 유튜브 youtu.be/xY0iFKBNb64에서 들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제7기 가정선교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하나님의 명령이며 영적전쟁" 제7기 가정선교세미나, 강사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가 주최한 제7기 가정선교세미나가 4일 오전 9시30분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에서 열렸다.

테필라 찬양특공대 찬양인도에 이어 열린 제1강 가정선교라는 주제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이재근 목사는 "가정선교는 사회적 가정문제에 대한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라 정의하며 "가정사역에 대한 가정평화와 안전을 위해 남편이 각종 기념일 챙기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영적전쟁이다. 가정선교는 십자가 도의 완성이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이

이뤄져야 십자가 도가 완성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지만 이웃과 관계가 별로라면 막대기일 뿐이다. 이웃과 관계도 정립이 돼야 가정선교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선교 4가지 목적은 첫째, 질서가 회복돼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바뀌었다. 가정질서회복이 가정선교 목적이다. 둘째,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파수해야 한다. 셋째, 파괴된 가정을 다시 바로세우는 것이다. 넷째, 가정의 복음화"라고 강조했다.

오후에 열린 2강은 가정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재근 목사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대표 박현주 전도사) 제 3회 정기연주회가 4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미녀와 야수' '예수사랑하심은', '에델바이스', '고향의 봄',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머니의 마음' 등을 연주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인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6년 10월 제 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돼 공연해왔다.

한편 동 오케스트라는 오는 5월 21일 미시건주 홀랜드에서 열리는 Sunner Institute

of Theology and Disability, 6월 29일 LA한미교육원에서 수원중앙복지재단 오페라 초청 공연, 그리고 7월15-19일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다.

(기사제공: 디스어빌리티오케스트라)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빛장로교회와 가정영어학교 주자장에서 열린 더텐트 메모리얼 콘서트

# 더텐트, 고 서진호 박사 추모콘서트 4월 27일과 5월 4일 2차례

더텐트미스트리(대표 다니엘방 목사)는 고 서진호 박사(서진호위원장내과 원장) 추모 공연을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에 열었다.

5월 4일 오후 5시30분 한빛장로교회(담임 김상현 목사)에서 열린 공연은 LA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 위로밴드(보컬 서린, 반주 에픽 피아니스트), 색서포니스트 켈리 이사호, 보컬 이민우 전도사, 반주 이지영 씨가 출연해 격조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서진호 박사와 돈독한 친분을 가졌던 엄인용 선생이 서박사와 추억을 소개하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가정영어학교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린 추모콘서트는 위로밴드, 소프라노 김은혜,

베이스 이사호, 반주 이지영, 보컬 이민우 전도사가 출연해 공연을 했다.

고인이 출석했던 한빛장로교회 김상현 담임목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신 서진호 장로의 갑작스러운 떠남이 먹먹하게 다가왔다"며 "특별히 더텐트 미스트리에서 마련한 추모 콘서트가 고인과 가족은 물론 그와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분들에게 큰 위로를 됐을 것이고 훌륭한 음악인들이 추모공연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 서진호 박사는 더텐트의 파킹캠프 콘서트 시작부터 공연장 제공은 물론 더텐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왔다. 서 박사는 지난 1월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박준호 기자)



국제제자훈련원 주최 미주 267기 제자훈련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9면에서 계속> 제자훈련과 리더십 등 주제 강의와 소그룹 환경과 성격, 귀납적 개인성명연구,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 제자훈련을 위한 헌신준비, 제자훈련 시간운영의 실제 등 소그룹, 효과적인 새신자 정착, 성경대학, 40일 캠페인 등 선택특강, 나는 제자훈련을 이렇게 한다 주제 간증, 주강사와의 대담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이석부 목사(나성금란교회)는 "작년 7월 나성금란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타인종 목회를 하다 처음으로 한인교회 목회를 담당하게 됐다"며, "금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기도해왔는데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에서 '선교적 교회에서의 제자되기'로 올해 표어를 정하고 사역하고 있다. 마침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한국 사랑했던 벽안의 선교사들에 갈채

말콤 펜워 선교130주년 기념 세계한인침례인대회

“한국의 여러분들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준 것을 우리 선교사들,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한국의 모든 침례교회가 발전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1일 진행된 '말콤 펜워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및 세계한인침례인대회' 둘째 날. 행사장 무대 위에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미국인들이 올랐다. 이들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가 펜워 선교사 130주년을 맞아 초청한 28명의 은퇴 선교사들이다. 미국 남침례교단 국제선교회(IMB)가 파송한 선교사들로 모두 한국에서 15년 이상 사역한 이들이다. 초청자 중 98세 최고령이었던 베티 헌트(헌복사) 선교사는 일주일 전 당한 교통사고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톨라 브래들리와 제네비에브 브래들리(베도일) 선교사 부부는 “한국말을 한 지 40년이 지나 많이 잊어버렸어요”라며면서도 여전히 한국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1963년부터 85년까지 기침 군선교회 책임자를 맡아 섬겼던 이들은 “그때 군인들 상대로 선교했는데 너무나 열매가 좋아서 지금도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어요”라며 미

소를 지었다.

91년 한국에 와서 17년간 음악선교사로 일했던 게리 매코이 선교사 부부는 이번엔 아들 제이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제이슨은 부산 침례병원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까지 한국에 살다 부모와 함께 한국을 떠났다. 제이슨은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한국을 떠날 때 다시 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29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역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반은 미국 사람, 절반은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 매슈 낸스(나은수) 선교사는 “제가 여기 온 건 아주 옛날, 호랑이가 담배피우던 시절이었다”고 인사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왜 나를 한국에 보냈냐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한국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다른 나라로 보내기 위한 한인선교사를 훈련시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침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복음화된 나라에 남아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선교하러 나가라고 했다”며 “학기 끝나고 학생들이 교수님은 왜 복음화된 나라에 남아 있나

고 해서 중국으로 가 8년간 가정교회 사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동아시아에서 20년간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겐 큰 영광이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 침례교단을 시작한 펜워의 선교사역 13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침례교인들과 선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펜워의 뒤를 이어 침례교단의 명맥을 이어오게 한 미국 남침례교 관계자들도 함께하며 침례교회의 선교 사명을 점검하고 되새겼다. 존 워터스 IMB이사는 협동 선교프로그램과 라티문 선교헌금 등을 소개하며 한국교회와의 선교 협력을 당부했다.

박종철 기침 총회장은 “펜워 선교사에서 시작해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해 주신 덕분에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침례교단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총회와 모든 교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참석한 목회자들도 오래간만에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다른 나라로 보내기 위한 한인선교사를 훈련시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침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복음화된 나라에 남아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선교하러 나가라고 했다”며 “학기 끝나고 학생들이 교수님은 왜 복음화된 나라에 남아 있나

## “탈북민부터 섬기는 게 통일선교 첫걸음”

북한 억류 최장기 외국인 임현수 목사 강연

“한국교회는 우리 땅에 온 3만여 명의 탈북민부터 품으며 북한 선교를 논해야 합니다. 이들도 감당치 못하면서 어떻게 70년간 떨어져 살아온 2000만 민족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4)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가 4일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전한 당부의 말이다. 북한 억류 최장기 외국인인 임 목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남산감리교회에서 열린 기독교통일포럼(상임대표 이원재 목사)의 '5월 열린 포럼'에 참석해 강연했다.

그는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을 150여 차례 방문했다. 교회 명의로 한화 550여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쳤으며 북한 내 고아원 양로원 및 교육기관 등을 설립·지원했다. 2015년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풀려났다.

임 목사는 한국교회의 통일 선교 방법으로 가장 먼저 탈북민을 돌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탈북민 3만여 명이 있는데 이들을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북한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해 이단

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먼저 품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장로회신학대와 총신대에서 신학 하는 탈북민 학생이 7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아는데 이들의 학비를 대주는 일부러 교회가 책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 자신이 캐나다에서 펼친 탈북민 목회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목회할 당시 교회가 탈북민 150가정을 섬겼고 나도 탈북민 한 가정과 6년 반을 한집에서 살았다”며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탈북민이 부지런히 살아 캐나다 영주권도 얻고 집도 구하며 동시에 신앙생활도 진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에서 만난 탈북민뿐 아니라 대북 지원을 하며 만난 대다수 북한 주민도 심성이 선량했다”며 “교회가 함께 살며 품을 준비가 된다면 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탈북민 3만 명도 감당치 못하는데 2000만 명을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품겠다는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분단 이후 70여 년간의 공백을 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민족 간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서로 생각의 차이

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억류 중 남한 간 의식 차이를 크게 느낀 일화도 소개했다. 수감 전 그를 조사하던 당 관계자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조선의 하나님인 우리 수령을 믿으라”며 눈물을 터트린 일이 그것이다. 그는 “김일성 종교의 광신자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뇌된 게 느껴졌다”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유일신 개념이 있어 북한 선교가 아주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통일 선교에 나서기 전 성경 말씀에 기초해 철저한 회개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통일을 진실하게 원한다면 먼저 교회부터 서로 연합하고 용서해야 한다”며 “이념을 정신적 우상으로 삼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를 모범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뒤 통일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에 있어 정부와 한국교회가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 목사는 “남북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국적 억류자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1인시위를 하는 등 석방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외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우리 미션은 한반도 통일의 길 여는 것”

제주에서 판문점 거쳐 전국으로...예장합동 새에덴교회서 3차 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이석원 목사)가 1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제3차 평화통일기도회를 열고 제주도에서 시작된 통일의 기도를 이어갔다.

통준위는 지난 1월 제주도 서귀포 동홍교회(박장건 목사)에서 1차 평화통일기도회를 진행한 데 이어 3월에는 비무장지대 판문점교회에서 2차 기도회를 개최했다. 제3차 기도회는 평화통일기도회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첫 단추다.

소강석 목사는 설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강화하려는 '19세

기 자아'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려는 '21세기 자아'가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의 '21세기 자아'를 깨우고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은 한반도에 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평화의 꽃길을 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도구는 간절한 기도”라고 역설했다. 또 “한국교회는 통일한반도의 역사적 사명을 기억하며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병수(통준위 위원) 황재열(통준위 총무) 김기성(통준위 위원) 목사가 차례로 나서 남북평화와 통일, 남과 북의 정상화 및 협력교류, 북한 복음화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2015년 100회기 때 첫선을 보인 총회 평화통일기도회는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한 기류를 오가는 가운데서도 줄곧 통일한국시대의 불꽃이 될 것을 천명해 왔다.

통준위는 오는 12일 광주양림교회(정대영 목사), 26일 부산 부전교회(박성규 목사)에서 각각 4차와 5차 평화통일기도회를 갖는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대구와 대전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해서도 인터뷰는 “KWMA가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일이 없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며 결의가 없었다는 입장이 다.

성서적 내적치유세미나

137차 성서적 내적치유세미나가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주제로 6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2박3일간 사랑의교회 수양관(경기 안성)에서 열린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 김선화 박사. 참가대상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분 △영성 회복과 부흥을 원하는 분 △내적치유를 사역에 적용하기 원하는 분으로 등록금은 20만원이며 등록 및 문의전화는 043-272-1761.

## 한교연 “교권 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법원,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에 비기독인 지정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최근 법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소속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지정한 것에 대해 30일 성명을 내고 ‘교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예장통합 교단 헌법(제2편 제10장 67조)과 헌법 시행규정(제16조 7항)을 근거로 법원의 집행이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을 훼손하고 명백하게 교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는 철저하게 소속 노회의 감독을 받게 돼 있으며 담임목사의 유교에

## “신학생 감소위기를 신학교 체질개선 기회로”

이정숙 전신협 신임 회장 비전 밝혀

전국신학대학협의회(전신협)가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았다. 전신협은 1965년 5월 설립돼 신학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그 위상을 높여왔다. 9개 신학교로 출발해 지금은 40개로 회원 학교가 늘었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제 5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숙 햇볼트리 네티신학대학원대 총장을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길 학교 총장실에서 만났다.

이 회장은 “전신협에 소속된 학교들은 성경과 오랜 기독교 전통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학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며 “통일과 다문화, 고령화 사회, 인공지능 등 다양하고 긴급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연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과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신협은 단순히 신학교나 학자들의 교제 모임이 아니다. 출판, 우수논문 시상, 학점 교류, 신학교육 세미나, 총학장 연수 등 10가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산하 (재)한국신학교육연구원(이사장 권득철)에서 신학연구 과제 등도 선정한다.

이 회장은 “전신협은 회원 학교 간 학점 교류도 한다. 미국 보스턴과 시카고 지역 신학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창립 때부터 동북아시아 지역 신학대와 교류해온 것도 전신협의 특징이다. 한국의 신학을 세계 곳곳에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신협은 일본신학

교육협의회(JATE)와도 교류하고 있다. 2년마다 한·일 신학자들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회장은 오는 24~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신학교육에 대해 발표한다. 전신협은 매년 가을 정기 콘퍼런스를 열어 신학교육의 현안을 다룬다.

최근 국내 신학교는 신학생 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학령인구와 기독교인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신학교의 변화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회장은 “평신도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학교육에서도 커리큘럼을 다변화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독교 사학들은 전환점에서 있다. 안팎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콥, “최근 제기된 의혹 우리와 관계없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 “언급할 사항 아니다” 즉답 피해

인터콥 선교회(본부장 최바울)가 최근 중국 정부가 2017년 5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2명의 배후에 인터콥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터콥은 1일 국민일보에 A4 7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를 인터콥이 파송한 일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인터콥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이들은 “KWMA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데 비판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고 공산 정부 입장만 대변, 전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인터콥이 KWMA를 정면으로 겨냥한 건 지난달 23일 KWMA가 회원단체에 발송했던 공문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WMA는 공문에 “중국 국가안보국이 2017년 파키스탄에서의 중국 선교사 납치-사망사태의 원인이 인터콥 선교회라고 적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에서) 테러행위를 한 자들에게 책임

을 물어야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전적으로 중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 지도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려는 '제국의 야망'을 가지고 추진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WMA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2일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KWMA는 지난해 2월부터 2년간 인터콥의 회원권 자격을 정지하고 사역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

## “한국교회는 탈북민 보호, 복송중단 촉구”

활빈단, 목회자 등 문대통령에 탈북민 구출 특별지시 촉구

교회 목회자와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지난주말 중국 공안인 체포한 9살 여자어린이를 포함한 7명의 탈북민에 대해 강제복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어 안산통일광장기도회(회장 윤치환 목사)목회자들과 함께 구출, 송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중국대사관 인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처로만 일관하지 말고 발빠른 대응으로 즉각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탈북민 구출 특별 지시를 내려주기를 촉구했다.

국내의 인권단체, 탈북민 3만여명,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출 호소 및 시위 동참을 요청했다.

또 깨어있는 시민들도 북녘 동포 인권보호 실천 차원에서 함께 행동에 나서 주길 호소했다.

(5면에서 계속)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 도적 같이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훔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처럼 깨어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진정어린 성도의 모습이다.

복잡한 세상, 단순한 삶

세상이 복잡하면 만큼, 성도의 삶도 복잡하기 그지없다. 상담을 하여도, 들으려하기 보다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전혀 그 마음속 깊은

데 까지 전달되지 못함을 본다. 그러다보니 정말 소견대로 행하는 신 사사시대의 정점을 사는 것처럼 혼탁한 세대를 본다. 그럴수록 참된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찾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며,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통해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복음과 연관되어 살아감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선교의 창 (121)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 프로젝트(Project)형 선교에 대한 제언

“쓴 것이 다 약이 아니라면 단 것도 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선교의 수단으로 프로젝트를 두고 한 말이다. 작금에 한인 세계선교를 보면 선교회나 교회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선교센터, 교회개혁, 공회사역, NGO 사역, 의료와 교육사역, 비즈니스 선교 등에서 이를 진행한다.

선교에서 프로젝트는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선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며 그것을 기반으로 사역적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순기능 못지않게 그 사역 자체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진실한 사역은 장려되되 선교의 본질에서 떠난 프로젝트형 선교를 경계해야 한다. 선교에서 순수성이 훼손된 프로젝트는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 1. 프로젝트의 중심성

선교에 있어서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이은무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형적 사업체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사역의 형태에 따른 한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므로 선교사들이 늘 되새겨야 할 일은 영적인 킹

덤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건물이란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무너지고 없어진다. 따라서 이 비전 설정이 바로 세워진 가운데 프로젝트도 구상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선교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주님은 결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시간이나 돈을 쓰신 기록이 없다.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도, 집도, 옷도, 무덤도 다 빌려 쓰시고 오직 그 분이 가지신 것이라고는 십자가뿐이었다”고 말한

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가? 그가 살던 시대배경은 지금보다 훨씬 프로젝트 사역을 요하는 때였다. 하지만 그 역시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 모델을 따랐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에서 큰 명제는 성경이 언급한 사역적 원리(Text)는 변하지 않되 그 형태는 상황(Context)에 맞게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다.

### 2. 한인선교가 넘어서야 할 프로젝트

현대는 보여주는 선교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은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드러낸다. 이로서 선교사는 자기 은사유무를 떠나 프로젝트형 사역에 현혹되곤 한다. 선교사 사회에서 뭔가 기뻐할 만한 아지트를 깔아 놓지 못

해당되는 6천여 교회만이 사역을 진행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다. 문제는 그 내용과 과정이다.

현지 교회를 이룰 회중도 많지 않고 또한 영적 지도자도 배출되지 않았는데 예배당만 덩그러니 지어놓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속빈 강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선교지에 교회당 신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록 여건이 되었다 해도 현지인들이 주도하게 하며 우리는 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 한인교회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저들을 무시하고 건축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생명 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 3. 프로젝트중심 선교의 문제점

이재한 선교사는 “비본질적

개념인식의 결핍이다. 선교사역(Ministry)과 선교사업(Business)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는 선교의 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곤 한다. 또한 한인의 특성인 “빨리 빨리 문화”가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속히 결과물을 내야 영웅적 사역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문제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충분한 리서치 가운데 전략적 수순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중복투자의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여기저기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한 지역에 같거나 비슷한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선교사끼리 불필요한 경쟁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둘째 치고 현지나라의 시각에 어떻게 비춰질까? 두렵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4. 바람직한 프로젝트 개발

첫째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진행할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성경적이며 현지인들에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전문기관이나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략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둘째는 나라별로 선교회와 교파를 초월해 가능한 연합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구멍가게식 중첩된 여러 프로젝트들은 현지 나라에서도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셋째 현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한다. 현지

인들이 주체가 된 가운데 진행됨이 바르다.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간 것이 아니다. 그 땅의 주인은 선교사가 아니다. 이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선교사들은 언젠가는 현지인에게 리더십이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속성의 문제이다.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지속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해외지원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점차 자립으로 가야 한다.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plan)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 맺음 말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중세 기독교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타락하였다. 그 때의 예배당들은 크고 화려하며 예술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불행히도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으며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한 시도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의식한 전시 효과적 프로젝트는 과감히 척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며 현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선교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위해 존재하며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냉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가능한 선에서 통합해야 한다. 장차 현지 나라에 자람이 될 수 있는 보배로운 프로젝트를 구축함에 관심이 있다. 그 방편은 하나님의 킹덤(Kingdom)으로 나아가갈 때 가능하다.

jrsong007@hanmail.net

## 선교의 수단으로 프로젝트는 필요하다.

## 선교의 본질을 떠난 프로젝트형 선교는 문제가 크다.

## 우리는 선교사업이 아닌 선교사역적 프로젝트를 추구해야 한다.



## 선교 편지

### 유럽북아프리카 무슬림 이민자 사역

지난 부활절에 라쁘에르파(La Puerta)교회에 축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기네아에서 수백 킬로의 사하라 사막과 낯선 땅을 지나 높은 스페인의 철책을 넘어 수용소 생활 끝에 난민의 신분을 얻어 저희가 있는 말라가로 오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레스날(Lesnar)입니다. 그의 가족은 개신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세례를 받지 않다가 홀로 낯선 나라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공부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예배시간에 그는 교회에서 준비한 흰옷을 입고 축복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말라가 항구에 도착하는 여객선을 통해 평균 20여명의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6개월 정도 보호시설에 흩어져 지내다가 유럽전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온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고난주간에 아프리카로 가는 여객선이 증편되어 운행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의 휴가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누어 주는 책 3권으로 구성된 패키지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아 패키지에 있는 책들 중 한 권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삽화와 그림그리기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어가는 복음책입니다. 지난 두달 동안 이 책만 3박스 반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부모 손을 잡고 여행하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받아서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복음으로 남기를 기도해주시지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 1월부터 La Puerta 문화센터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건물을 옮겨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민들과 무슬림들에 대한 사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화사역이 필요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지요.

지금도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5팀이 올 계획입니다. 6월 24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역을 통해 단기 선교팀들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선교

사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패키지들을 무슬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과 직접 만나 성경패키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들과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크고 놀라운 음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슬림들의 흠여짐 앞에 방관이 아닌 관심으로 침입이 아닌 기회로 알아 맡겨주시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 선교지 소개

SEED 유럽 사역지인 지중해는 23개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중 몰타와 키프로스는 섬나라이고, 지브랄타는 영국 실효 지배하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중해는 북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유럽의 항구들이 북아프리카의 도시들과 패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해마다 4%의 승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승객의 대부분이 북아프리카 출신들로 유럽에 살고 있거나 북아프리카에 살지만 유럽을 오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미전도 지역으로 지중해 남부인 북아프리카와 동부지역인 중동을 남기셨습니다. 지난 40여년 간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집중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은 30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99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기간에 무슬림들을 선교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30일간의 라마단기간에 이슬람권의 복음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가장 가까운 스페인 남부의 알헤시라스에 선교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간에 프랑스 트럭회사의 파업으로, 북아프리카로 여행하려고 하던 무슬림들이 스페인 남부 알헤시라스(Algeciras) 항구로 몰리게 되면서 무려

80km 구간에 차량 정체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알헤시라스에 있던 몇몇 선교사가 전도용으로 제작했던 예수영화 카세트테이프를 도로로 나가 나눠주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해인 1993년 여름 어느 날, 마이클 소사이어티, CCC와 다른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함께 도로에 정체된 무슬림들의 차량에 다양한 복음전도 물품들을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차에서 내린 모로코 형제가 사역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이 곳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 카세트테이프를 우리 가족이 들으면서 지루해질 뻔한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배포사역을 통해 보고된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는 북아프리카의 문을 열기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로인해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나라의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당시 모로코에서 기독교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모로코에는 4만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부활의 그날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2. 라쁘에르파 문화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을 갖추 수 있게 하소서.  
3. 매일아침 항구에서 나누어주는 성경패키지를 받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4. 여름 집중사역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참여하는 팀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5. 미국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6. 아이들(엘리사벳 10, 이안 9, 케빈 7)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2019년 4월이 끝나갈 무렵, Málaga, Spain SEED 지중해권 선교소식 남사현, 이현진 선교사 드림 malagamission@gmail.com



### 중국가정교회의 상황:과거, 현재, 미래(4)

노봉린 박사

AGST Pacific하와이신학대학 학장, 전 OMF선교사(1970-2000)



핍박 속에 있는 중국가정교회 는 현재 두개의 중요한 이슈를 안고 있다. 목회자양성(신학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열열이 일어나고 있는 "선교한국 2030" 선교운동이 2018년에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선교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1. 신학 교육 문제

2015년 한국에서 Asia Missiological Society(아시아신교협회)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홍콩에 있는 홍콩성경신학교 학장인 Dr. Thomas Lee가 참석하여 말하기를 중국에 21개 삼자교회 신학교를 포함하여 700개 신학교가 있다면서 자기 신학교에서는 약 200개 가정교회 신학교와 연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많은 가정교회 신학교의 학적 레이블은 서로 다르지만 그중에도 신학 학위를 수여하는 도시 신학교도 많이 있다. 문제는 현재 중국내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가정교회 신학교를 운영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정교회 신학교들이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에 신학교 인가신청을 하여왔으나 ATA 이사회에서 종교자유가 허용될 때까지 인가심사를 기다리도록 결정하였다. 중국내에서 신학교육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하여 중국본토 외에서 지도자양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에 중국 신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사용하여 중국신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찾아

나야 할 것이다. 한국에 중국신학교가 4개(총신-사당동, 고신, 세계선교신학원, 동북아시아 신학교)가 있다. 특별히 한국은 중국의 옆집이며 아시아에서 신학교육이 높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중국교회 지도자 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한국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오래 동안 사역해왔으며 중국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무비자로 외국인인 한 달 동안 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이용하여 중국교역자 양성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수많은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2019년

#### 한국에서 중국교회 지도자양성 신학교 교육 추진 2030년까지 중국선교사 20,000명 파송운동 전개

2월초에 한국의 김의원 박사(전 총신총장, 전 백석대학부총장)와 사모님이 하와이를 방문하였을 때 보고하기를 2019년 1월말에 중국에서 신학생들이 제주도에서 단기 신학교육을 받기 위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영사관 관원들이 벌써 알고 그들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들이 유하며 공부하는 장소까지 찾아와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서울의 중국신학생 교육도 찾아낼 것으로 추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2. "선교중국2030" 선교운동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협조하여 2030년까지 중국선교사 20,000명을 파송하자는 선교운동이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제1차 선교대회는 2015년 5월에 홍콩에서 열렸는데 약 1,000명 참가자가 중국으로 부터 참석하였다. 작은 한국 땅에서 28,000명 한국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놀라운 보고를 듣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본인에게 "한국교회 선교역사"에 대해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선교집회에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의 선교열정은 대단하였다. 1990년대에 열열이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선교열풍이 중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미주크리스천신문,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

2016년 11월 5일과 12일 게재). 제2회 선교대회는 2016년 9월에 제주도에서 1,200 중국가정교회 교인들이 참석하여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다. 제3회 선교대회는 2017년 8월에 태국(차양마이)에서 중국대학생선교대회가 열렸는데 1,200명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현재 약 1,000-2,000명 중국선교사들이 대부분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로잔운동 동아시아본부에서 보고하였다. 중국교회 선교의 시초는 중국 시골가정교회에서 1940년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Back To Jerusalem Movement-BTJ)

라는 간판을 내걸고 복음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유럽과 북미를 거쳐 아시아에 도착하였다. 이 복음을 중동지역의 무슬림에게 전하여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화 시키는 선교운동이 중국교회 선교운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교비전을 갖게 되었다. 중국교회는 현재까지 이 선교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장래의 중국교회의 "선교중국 2030"운동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선교운동이 현재 정부핍박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계속 중국교회 선교운동이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 결론

1960년대-1970년대의 중국문화운동 때 교회핍박이 심해지면서 가정교회가 활성화 된 것이 1990년대에 도시에도 성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기적적인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중국인민공화국은 1980년대 덩소평 주석의 중국현대화운동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주석의 가정교회 핍박이 얼마나 계속될지 또한 어떻게 가정교회가 앞으로 변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위해 종교자유가 속히 이 땅에 찾아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30년간(1970-2000) OMF선교사로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20년간(1970-1989) 중국사역을 하였고 한국에서 10년(1990-2000) 신학교육의 선교사역에 종사해왔다. 그러므로 본인은 중국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중국교회에 있다고 보며 앞으로의 세계복음화는 중국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끝)



### 브라질

사람은 만남과 나눔과 섬김 속에 사랑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 가는 것 같습니다.

배를 20시간 타고 꼬아리 지역에서 한 주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였고,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우스에 돌아와 이곳에 처음 만난 한국에서 온 김창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마나우스 명소를 다니며 선교 문화 탐방과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는 마약하다 죽은 젊은 청년 장례식에 함께하여 죽음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우스에서 가까운 강변 마을을 돌며 해상에 집을 짓고 평생 물과 함께 거하며 살고 있는 색다른 환경을 접하며 참으로 다양하게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 밤에는 아마존 동산교회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집례하면서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을 빌며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함께 동행한 서울에서 온 김 목사님과 지 목사님은 어제 밤 늦게 다음 행선지로 떠나고, 꼬아리에 함께 동행하여 사역을 함께한 최호영 목사님은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고, 텅빈 집에서 혼자 잠시 눈을 붙이고 저 또한 아마존인디오개척신학교 학장인 박종훈 선교사 환송을 받으며 아침 비행기로 쌍파울로 돌아옵니다.

짧은 두 주간이었지만 여러 지역을 돌며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나눔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노년에 이렇게 쓰임 받으며 살 수 있으니... 배후에서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강성철 선교사 드림 kangsungchuel@gmail.com

### 총21명 수료, 니카라과 단기선교 22명 파송

#### 뉴욕실버미션 제28기 중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 제 28기 중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가 지난 4월 29일 저녁 8시 뉴욕교회(김성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28기 수료자는 총 21명이다. 예배는 김경렬 목사 인도로 경배

와 찬양 유태웅 목사, 대표기도 손성대 장로, 설교 김재열 목사, 헌금송 이재봉 목사, 헌금기도 박준열 목사, 수료증 수여 김재열 목사, 선서 및 단기선교사 파송 최윤섭 목사, 인사말씀 김한철 집사, 축가 유태웅 목사, 예배무용 cbsn선교무

용단, 특별출연 클라리넷 연주, 광교 장충현 장로, 축도 김성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는 시편 92편 12-15절을 본문으로 "늘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은퇴한 실버선교사들의 활발한 사역을 소개하며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더 역동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기선교는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니카라과로 22명이 파송됐다. 의료, 한방, 이/미용, 안경, VBS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게 된다.

자세한 문의를 훈련원장 김경렬 목사(917-963-9356)나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646-309-1787)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 뉴욕실버미션)



뉴욕실버미션 제28기 중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새롭게 선포되는 21세기의 천로역정"

#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은이 김성국



저자 김성국 목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유독 더 알차게 48시간처럼 살아간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고 기도와 묵상과 심방과 설교준비까지 빈틈없는 일과가 일상화된 루틴 같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꿈 앞에 설레어 한다.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연합으로 서로를 섬기는 다민족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도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를 즐겨 찬양하며, '어머니'란 말 앞에 늘 눈시울이 붉어진다.

때론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때론 선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때론 '복음 앞에 오직 승리'하는 전략가의 지밀함으로 그의 일상은 영성을 노래한다.

- 편집자 주 -

권장도서: 동부개혁신교회 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 단비 TV 이사, (전) 해전대학교 교무실장, (전) 해전대학 교수 및 교육실장

히즈핑거 (His Finger)

책에 대한 문의를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 영어로 보는 성경 (17)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Ezra 1:1,2

1)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his realm and also to put it in writing:

2)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NIV 1984)

### WORD & IDIOM

\* fulfill: 이루다, 완수하다 \* in order to + v ~: ~ 하기 위하여 \* move: 감동시키다, 움직이다 \* proclamation: 선언, 공포 \* throughout: ~의 전지역에 \* realm: 영역, 영토 \* appoint: 임명(지명)하다 \* spoken: 과거분사로 앞의 the word of the Lord를 수식한다. \* move the heart of ~: ~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 put it in writing: 그것을 글로 표현하다

### GRAMMAR

#### 1)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예레미야에 의해 말하여진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주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his realm and also to put it in writing:  
그의 영토 전 지역에 공포하고 또한 그것을 글로 쓰게 하기 위하여 =>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가 다스리는 영토 전 지역에 공포하고 또한 그것을 글로 쓰게 하기위해 주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 위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 문장과 달리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긴 문장이 된다. 이 경우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이는 고레스가 통치하는 전역에 공포하고 또한 그것을 글로 쓰게 하기 위함이었다.

\* to make a proclamation ~ 와 to put it in writing에서 to는 in order to(~ 하기 위하여)와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 \* to put it in writing에서 it는 공포할 내용이기도 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2절에서 밝히고 있다.

#### 2)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 것이다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주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그가 성전을 짓도록 나를 임명하셨다 그를 위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 주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나를 임명하셨다."

\*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 주어 + 동사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S+V+IO+DO)의 4형식 문장이다. has given은 give의 현재완료형이다.  
\*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 주어 + 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S+V+O+OC)의 5형식의 문장이다. 여기서 to+V(to build ~)는 목적격(me) 보어로서 그가 나를 임명한 이유를 말해준다. Ex) I want you to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 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 내가 너를 원하는 이유가 to+V ~ 이다.

### STUDY & THOUGH

■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포용정책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렘 25:11, 12; 29:10)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속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이루어가는 세계열강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의 도구임을 알게 한다.

■ No power can be gained by any nation in this world without God's permission.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신실한 대제사장(히1:17-18)찬194장

그리스도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까닭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섬겼습니까? 첫째, 형제와 같이 되셨습니까(17).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죄가 없는 제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친히 사람이 되셔야했습니다. 둘째, 백성의 죄를 속

람할 목적으로 섬기셨습니다(17). 십자가의 십자로 우리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셋째,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돕기 위해 시험을 참으셨습니까(18). 모든 시험을 경함하셨기에 자기 백성의 온갖 종류의 시험의 난관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치료하십시오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의지함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 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이유(히3:1-4)찬94장

사도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까? 첫째, 그만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1). 믿는 도리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오직 그는 복음 자체이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러 성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도를 따르는 자만이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실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냄 받은 선지자라면 대

제사장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성부께 나아가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셋째, 모세보다 더 영화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의 구속의 사역은 누구라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복음무이한 일입니다. 단지 모세를 따르는 자만이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 수 참 모세이신 그리스도(히3:5-6)찬412장

모세와 비교해 혼란 속에 빠진 유대교 그리스도는 참모세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종이셨습니다(5). 모세는 마지막에 성취될 일들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모세와만 이야기할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참모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6). 모세도 충성된 사환이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 교회의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셋째, 그의 집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실해야 합니다(6). 참모세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더불어 큰 확신 속에 살아가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시다.

## 목 우리가 조심할 것(히3:7-13)찬257장

광야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행위를 통해 우리가 조심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7-8). 그러자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물려오는 온갖 유혹을 이깁니다. 둘째, 죄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9-10). 이스라엘이 미혹의 영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로 이끄는 사탄의 계개 곧 거짓교훈을 삼가 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인 성경에 착념하지 못하면 저절로 교만해 온갖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11-13). 구원의 마지막 천국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미 불잡힌 바를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될 때 그 안식을 누립니다. 이 길을 막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 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히3:14-19)찬26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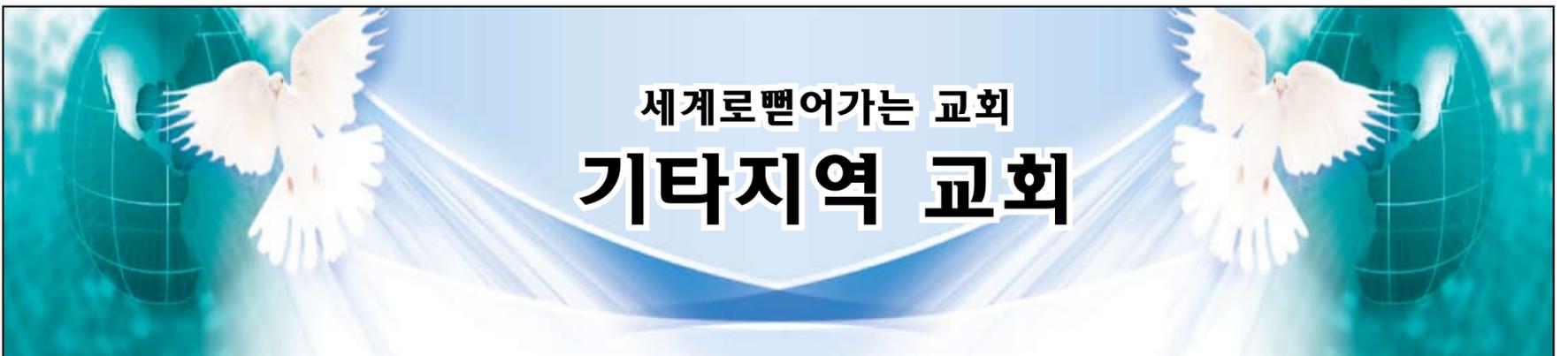
구원받은 자의 영적성장은 항상 힘쓸 일입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힘써야합니까? 첫째, 확신한 것을 확고해 잡아야 합니다(14). 그 확신한 것은 먼저 구원이고 다음이 구원에 따른 약속과 그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인 의인성을 나타내는 삶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교만

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은혜를 받드시 받습니다. 셋째,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18). 약속된 안식은 온전한 성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 토 믿음의 효력(히4:1-4)찬189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두려움이 증거합니다(1).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에 대한 떨림 곧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죄에 대한 공포와 달리 사랑을 배경으로 한 떨림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둘째,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2). 약속된 안식은 여전히 믿음

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얻는 상급입니다. 셋째,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안식입니다(3). 그 안식은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며 에덴동산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에덴에 불독 사이로 왕래한 비유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그 안식의 나라로 나아갑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무지,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살롱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대위헌법: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 유년, 유년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인/터/뷰

## 이정숙 목사(월드쉐어 이사)

### '월드쉐어' 창립15주년...국제적 구호단체로 큰 역할 기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월드쉐어가 이번에 드린 창립기념예배 및 월드쉐어 USA 사무실 이전예배를 통해 국제구호 NGO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5일 LA 한인타운 내 아로마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월드쉐어USA 창립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예배 차 LA를 방문한 이정숙 목사(월드쉐어 이사)는 월드쉐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국제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NGO들과 잘 협력해 효과적으로 구호사역을 잘 감당하는 NGO가 되길 기원했다.

15년이란 세월동안 묵묵히 국제구호사역에 헌신해온 월드쉐어는 사역에 치중한 나머지 대중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정숙 이사는 "월드비전, 컴패션, 굿네이버스 등 저희들과 같이 구호활동을 해온 단체들에 비해 월드쉐어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15살이 된 만큼 이제는 더욱더 활발히 활동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월드쉐어는 현재 한국을 비롯, 미국, 온두라스, 도미니카, 과테말라 등 15개 지부를 두고 2019년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정부 및 사업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현장에서 수혜자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국경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

다. 월드쉐어는 1986년 11월 권태일 목사가 '함께하는사랑발'이라는 구호사역을 시작했으며 함께하는사랑발 국제부가 지난 2006년 법인을 내면서 시작됐다. 미주지역에서는 2004년 월드아가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외

라스, 과테말라 등을 순회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중미 4개국을 방문했는데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이티 지부는 폭동중입니다. 이미 활동 중인 NGO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선교사들도 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사는 이러한 어려운 현

스텝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권태일 목사님과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됐고 월드쉐어라는 NGO를 이끌고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이 저의 다음스텝이었던 셈이죠."

이정숙 이사는 "월드쉐어는 타 NGO와 달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구조 활동에 동참하는 NGO"라 언급했다.

이정은 과테말라 지부장은 "저희들은 구호현장에 나아갈 때 월드쉐어 조끼를 입고 갑니다. 조끼에는 태극기가 달려있어서 간혹 한국정부에서 파견 나온 단체인 줄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작은 오해가 구호활동과정 중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구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호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재단을 당한 지역에 수많은 구호물품들이 전달되는데 정작 이재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품들이 없을 때가 많다"며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는 지원이 잘 안되기도 하며 지원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정작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합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정숙 이사는 월드쉐어와 월드쉐어USA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호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문의: (323)578-7933 (박준호 기자)



월드쉐어 스텝들 왼쪽부터 이정은 과테말라 지부장, 이정숙 이사, 강태광 월드쉐어USA대표

구조 현장마다 찾아가는 국제NGO...지역단체와 협력 효율적 사역하길

교통상부 산하 국제구호단체로 등록과 동시에 그 명칭을 '월드쉐어'로 변경했다.

월드쉐어는 지난 2005년 쓰나미 피해지역인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를 시작으로 2008년 미얀마의 사이클론, 중국의 쓰촨성, 아이티 지진피해,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2014년 원안성 지진피해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구호팀을 파견해 의료지원, 구호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정숙 이사는 미국방문해 앞서 아이티, 도미니카, 온두

라스, 과테말라 등을 순회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중미 4개국을 방문했는데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이티 지부는 폭동중입니다. 이미 활동 중인 NGO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선교사들도 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숙 이사는 "월드쉐어는 타 NGO와 달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구조 활동에 동참하는 NGO"라 언급했다. 이정은 과테말라 지부장은 "저희들은 구호현장에 나아갈 때 월드쉐어 조끼를 입고 갑니다. 조끼에는 태극기가 달려있어서 간혹 한국정부에서 파견 나온 단체인 줄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작은 오해가 구호활동과정 중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구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호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재단을 당한 지역에 수많은 구호물품들이 전달되는데 정작 이재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품들이 없을 때가 많다"며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는 지원이 잘 안되기도 하며 지원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정작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합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정숙 이사는 미국방문해 앞서 아이티, 도미니카, 온두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폐암

조기 발견 불가능, 담배 안 피우는 것이 예방책

해마다 폐암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성이나 소수민족의 폐암 사망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20-30년 후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니 금연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의류업을 하는 정 씨는 50대 초반으로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정씨는 3개월 전부터 잔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알레르기인줄 알고 있다가 기침이 더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왔다. 기침은 나지만 열은 없었고 감기증상도 전혀 없었다. 정 씨는 과거 특별한 병을 앓은 적은 없지만 지난 30년 간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웠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이다. 정씨를 검진하자 우측 폐음이 약간 감소한 것 외에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었다. 흉부 엑스선 촬영은 정상이었는데 폐 기능 검사상 호기량은 감소해 있었다. 정 씨는 기관지천식으로 인한 만성기침으로 일단 진단을 받고 천식치료를 했다. 하지만 정 씨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다. 정밀 검사를 위해 폐 단층 촬영을 했는데 작은 이상이 나타났고 폐 내시경으로 기관지 내 폐암을 발견했다. 정 씨는 초기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폐암은 현재 미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지난 2004년에만 폐암으로 18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수치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많다. 현재 폐암을 확실하게 조기 발견하는 방법은 없다. 흉부 방사선 촬영과 객담 검사 등으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어느 방법도 확실하게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따라서 폐암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흡연 양과 폐암 발병에 관한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35세인 흡연자가 85세가 될 때까지 폐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갑 이하를 피우면 확률이 9% 정도, 하루 한갑 이상을 피우면 18%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담배를 끊으면 폐암의 발생확률은 감소하는데 금연 후 5년이 되면 그 감소가 뚜렷하고 15년이 되면 폐암의 위험이 9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마음먹고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사방문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문합창단

### 5월 25일 오후7시 콜벤스쿨 지퍼홀에서 제 14회 정기공연

이화대학교 남가주동문합창단(단장 안혜숙, 지휘 이종헌) 제 14회 정기공연을 준비 중인 합창단원들이 지난 2일 오후 1시 본사를 방문해 "올 연주회는 본교 창립 133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로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연주회를 소개했다. 이번 정기공연은 5월 25일(토) 오후 7시 콜벤스쿨 지퍼홀에서 열린다.

안혜숙 단장은 "다양한 전공을 소유한 이화인들이 음악을 통해 모이고 있습니다. 합

창을 통해 단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뿐 아니라 모든 이화 가족들과의 어울림의 장

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찬양 곡도 준비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리는 테너 정승철 씨와 소프라노 린제이 펠드메스 웨스트라노가 특별 출연해 한층 더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찬양팀원들과 함께 동행한 지휘자 이종헌 씨는 "음악의 퀄리티가 남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공연을 거듭할 수록 목소리가 풍성해지고 최상의 하모니를 내고 있다"고

단원들의 음악실력을 향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등 교회음악을 비롯해 '최진사택 셋째딸', '오빠생각', '휘황 날아오' 등 신 민요와 동요로 준비되며 참석한 청중들과 함께 가곡을 부르는 시간을 마련했고 무언극도 있어 다채로운 순서로 꾸며진다.

본 합창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창

단돼 그동안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모교 창립 130주년 기념 합창대회에서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초청으로 공연을 가진바 있다.

한편 특별 출연하는 테너 정승철 씨는 프랑코 코렐리의 수제자로 풍부한 질감의 목소리를 가진 테너로 평가 받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서부지역 우승, 슈베르트 콩쿨, 라코니치 콩쿨 등 다수

의 국제적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다. 또한 소프라노 린제이 펠드메스 웨스트라노는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음악원을 졸업했다.

이번 음악회는 예술에 관심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단 430석 한정으로 사전 접수를 통해 티켓을 소지해야 입장할 수 있다.

티켓문의는 (562)506-7686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15.5cm × 5.8cm	\$350.00	
	전면 1/4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